

vol.
308

2022.
December

오늘의 도서관

눈으로 경험하는 황홀경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욕구는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이 탄생하기 전, 인간은 그림을 통해 사물을 기억했지만 사진 탄생 이후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담아낼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등장한 입체경은 사람들의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듯 입체경 안에서는 평평한 사진이 생생하게 바뀌어 보였기 때문이다. 사진을 갈아 끼우며 신기한 눈속임에 매료되었던 19세기 사람들.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입체경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 인류는 언제나 생각의 힘으로 다양한 장치를 만들고, 이를 즐기며 또다시 생각을 기록한다. 그 유구한 역사 속에 국립중앙도서관은 기록매체 보존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월간<오늘의 도서관>은 누리집(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

vol. **308**
2022. 12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기록매체박물관

| 표지 이야기 |

가상현실 체험의 전신, 입체경(stereoscope)

사람의 양쪽 망막에 맺히는 대상이 거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양안시차의 원리로 만들어진 입체경이다.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입체경을 통해 바라보면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입체경은 오늘날 여러 개의 렌즈가 있는 스마트폰이나 3D 입체 안경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 제32권 제10호 통권 308호

발행일 2022년 11월 30일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67-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윤, 손효림, 송재술, 김승정, 박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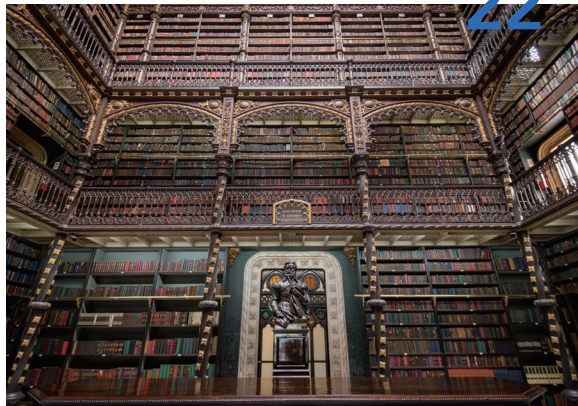
편집 이정화 today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31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P31 02-3141-2760

외부 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2

06



Contents

늘 서재

- 04 오늘의 칼럼**
장애인에게 도서관이 천국이어야 하는 이유
- 06 자료 보존 이야기**
한국 최장수 신문 연재 시사만화 '고바우 영감'
'고바우 영감'의 문화·정치적 의의와 소장 가치
- 10 장서 속 인물들**
<시헌기요> 남병길
조선에 새로운 하늘을 열어준 천재 수학자
- 14 사서는 독서 중**
따뜻한 차 한잔과 함께 읽기 좋은 추천 도서

오늘의 도서관 12월호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 블로그 blog.naver.com/dibrary1004
-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
- 페이스북 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
- 유튜브 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

열린 도서관

- 18 나를 키운 도서관**
김지연 미술평론가와 마포구립서강도서관
가까이 있어 더 귀한
- 22 해외 도서관 랜선 투어**
차분한 열정과 식지 않는 진심이 있는 도서관
브라질 도서관
- 26 도서관 트렌드**
울겨울은 조금 더 천천히 넘겨보세요
책과 함께 머무는 도서관에서의 하룻밤

북 라운지

- 30 오늘의 만남**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를 응원합니다
방송인 타일러 라쉬
- 34 우리가 사랑한 작가**
광대가 되고 싶었던 가난한 소년의 꿈
찰스 디킨스
- 38 독립서점 산책**
공주 독립서점 '가가책방'
온기를 품은 무인 서점
- 42 책 읽어드립니다**
신형철 <인생의 역사>
시화로 걸어 올린 인생의 순간들
- 46 꺼내 먹는 책**
에세이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환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 동태전
- 48 책 듣는 시간**
다와다 요코 <눈 속의 에튀드>
새하얀 눈송이가 들려주는 비련의 이야기

도서관 소식

-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 58 웹툰-국립중앙도서관 이용백서**
미디어창작실



30



38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l.or.kr

장애인에게 도서관이 천국이어야 하는 이유

글 원종필 국립장애인도서관장

“천국은 도서관과 같으리라.”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884~1962)는 수백만 권의 장서가 진열된 도서관을 천국으로 칭할 만큼 지독한 독서가였다. ‘읽는 존재’로서의 바슐라르에게 도서관은 과거의 지성들과 교감하는 타임머신이었으며,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길이었을 것이다.

어디 바슐라르뿐이겠는가. 인류의 글쓰기가 시작되었다는 기원전 3000년경 최초의 도서관이 탄생했고, 그 유적들은 미래 속에 파묻힌 채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내다 마침내 우리 앞에 등장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미 하늘의 별을 통해 미래를 점쳤고 꿈을 기록했으며 천둥과 번개, 홍수와 가뭄을 겪었던 자연을 기록하고, 동료와 적을 구분해 전쟁을 치르며 피아(彼我)를 구분해 기록했다. 그 무수한 기록들은 쌓이고 쌓여 책으로 남았고, 책은 다시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차곡차곡 쌓여 인류의 자산이 되었다. 그렇게 도서관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해 왔으며, 단순히 책을 진열하고 보관하는 장소에서 활자와 기록의 발전을 촉진했으며 나아가 근대 문명의 비약적인 진보의 씨앗을 품는 장소이기도 했다.

그 유구한 도서관의 역사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 문명의 발자취가 날날이 기록된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른 접근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을 테고, 특히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조력자가 대신 읽어주는 책을 ‘귀로 읽었을 것’이다.

요즘에야 새로운 독서 콘텐츠로 각광받기 시작한 오디오 북이 사실은 예전부터 도서관의 역사와 함께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의 조력으로 책을 듣는 행위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의 특권이었을 것이고, 현대에 이르러 저작권자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더욱 접근이 어려워졌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독서장애인들이 비로소 ‘읽는 존재’로서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것은 2013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을 채택하면서부터였다. 도서관의 역사에 비해 턱없이 늦은 인류의 각성은 그럼에도 독서장애인들에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물꼬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 및 기타 장애로 인해 저작물 접근이 제한된 독서장애인의 정당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무려 30년의 지난한 논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성사된 국제조약이었다. 간단히 요약하면,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독서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만들고, 이를 복제, 배포, 공중 송신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독서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다른 회원국의 승인된 기관이나 수혜자(독서장애를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배포하거나 접근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수혜자나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독서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수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라케시 조약은 저작권 보호 중심에서 독서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의무화한 최초의 조약으로, 그동안 독서장애인의 권리를 최소 기준만으로 적용했던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내용이어서 기대가 매우 컸다. 우리나라도 2015년 비준한 당사국인 만큼 국내 독서장애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대체 자료로 변환하는 비율은 만화를 제외한 국내 발행 종수의 약 18%(2022년 기준), 전자책(e-book)은 5% 안팎에 불과하다. 다행히 오디오 북 시장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독서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는 한정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바쁜 현대인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 콘텐츠 시장의 큰 몫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소극적인 지원 콘텐츠에서 적극적 마케팅 시장으로 비중이 넓어졌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의 2020년 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오디오 북 시장 규모는 26억 7000만 달러(약 3조 원)에 달했으며, 2027년까지 연평균 24.4%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제도가 해결하지 못해 미적대던 독서장애인의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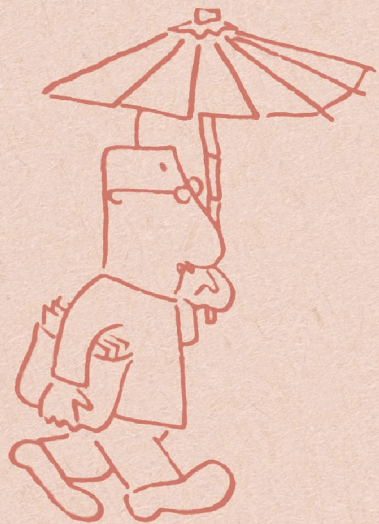
접근성 문제를 시장경제체계가 나서서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에 이르러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구비해 두고 방문자들에게 제공하는 고전적 개념의 장소에서 벗어나,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읽는 행위’의 방식을 모색하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책을 읽고 공부하는 조용한 장소라는 도서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읽는 행위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는 이용자의 욕구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국립장애인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책을 읽을 수 있는 콘텐츠 제작과 배포하는 단순한 공급자 중심 역할에서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북유럽과 미국의 공공도서관들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이라는 틀을 깨고 지역의 복합문화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서관이라는 고전적이고 정적인 공간에 사람들의 숨결을 담아 살아 있는 공간으로 확장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에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역시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가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새로운 콘텐츠에 접근하고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 래야만 현재의 협소한 공간에 갇혀 콘텐츠 공급만을 기계적으로 하는 답답한 환경에서 벗어나 모든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살아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읽는 존재’로서 다양한 콘텐츠와 새로운 정보를 찾고 소통하며 대화를 나누는 살아 있는 천국일 수밖에 없다. ❶

한국 최장수 신문 연재 시사만화 ‘고바우 영감’

‘고바우 영감’의 문화·정치적 의의와 소장 가치



김성환 화백이 그린 ‘고바우 영감’은 1955년부터 2000년까지 45년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문화일보>에 총 1만 4139회가 게재된 세계 언론 사상 최장수 연재만화다. 이 만화는 ‘네 컷 시사만화’라는 한국 특유의 신문 만화 장르를 구축했고, 권위주의적 정권과 군사독재, 유신정권에 대한 비판과 풍자의 정신을 유지했다. 이 만화는 무겁고 어두운 정치권력에 재치와 유머 감각으로 맞섬으로써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고바우 영감’은 정치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면서도, 한국 근현대사의 생활문화상을 담고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도 갖는다. ‘고바우 영감’의 원화는 2014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최초의 만화가 되었다.

글 방희경 사진 방희경, 국립중앙도서관



한국 시사만화의 흐름과 경향

네 컷 시사만화는 한국 특유의 신문 만화 장르다. 서양에서 신문 만화는 ‘캐리커처(caricature)’와 ‘시사만평(satirical cartoon)’, 그리고 ‘코믹 스트립(comic strips)’ 등 세 가지 장르로 구분된다. 캐리커처가 특정 인물의 특징을 과장해서 희화화해 그린 것이라면, 시사만평은 사회적 현실과 세태를 풍자하는 신문 만화로서 보통 한 컷으로 구성된다. 네 컷 이상으로 구성되는 코믹 스트립은 연재되는 특성을 지니며, 시사적인 사안보다 코믹한 내용을 담아 신문 독자를 확보하는 데 이용된다. 그러나 ‘고바우 영감’은 네 컷으로 구성되는 코믹 스트립의 형식에 시사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독특한 방식을 취한다. 이는 김성환 화백이 <동아일보>에 입사했을 당시 한 컷 만평과 네 컷 코믹 스트립을 함께 그리다가 만평을 그만두게 되면서 네 컷 만화에 시사적인 소재를 녹여 넣기 시작하면서 탄생한 장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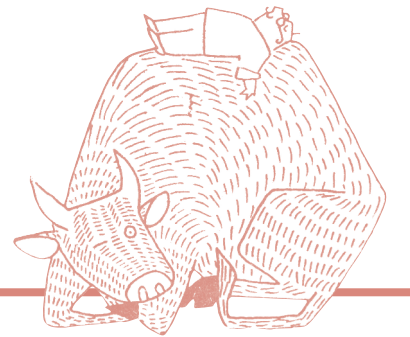
이후 한국의 신문들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네 컷 시사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했고, 안의섭의 ‘두꺼비’와 정운경의 ‘왈순아 지매’는 ‘고바우 영감’과 함께 한국 3대 네 컷 시사만화로 꼽힌다. 이들은 모두 소시민적 삶을 살아가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선량하고 상식적인 면모를 강조한다. 또한 정치인과 기업가 등 사회적 권력자들을 주인공의 대척점에 위치시키며 도덕적 결격 사유가 있는 인물로 묘사해 조롱의 대상으로 만든다. 특히 네 컷 시사만화는 시사적 사안들을 ‘기(起)-승(承)-전(轉)-반전(反轉)’의 네 컷짜리 이야기로 재치 있게 구성해 독자들을 웃게 만들었다. 네 컷 시사만화는 6.25전쟁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시사만화의 주도적 형식이었으나, 2000년대부터 주인공이 따로 없는 한 컷 만평으로 대체되었다. 1990년대 후반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의 정체성이 복잡하게 분화되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신분을 나

타내는 ‘소시민’이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했던 탓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성환 화백의 만화와 함께한 삶

김성환은 1949년 18세의 나이에 만화가로 데뷔한다. 고등학교 시절 하숙집에 함께 살던 친구가 ‘신문팔이’로 일하고 있었는데 (당시 대부분 일간지는 일반인 보급률이 낮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들이 있었다) 팔고 남은 신문을 집으로 가져오곤 했다. 하루는 새로 창간된 <연합신문>(1949년 1월 22일 양우정 창간)을 가져와 만화 그리기를 좋아하는 김성환에게 그려놓은 만화 원고를 신문사에 보내보라고 권했다. 학비라도 벌어들 생각에 만화 네 편을 그려 신문팔이 친구를 통해 신문사에 보냈고, 얼마 후 <연합신문> 부장이 찾아와 만화 연재를 제안한다. 그렇게 만화가로 데뷔해 신문과 잡지에 만화를 연재하던 중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다. 김성환은 종군 화가로 전쟁에 참여했고 이후 국방부에서 전문 교육용으로 발간하던 신문과 잡지에 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이때 ‘전선의 고바우’라는 만화가 탄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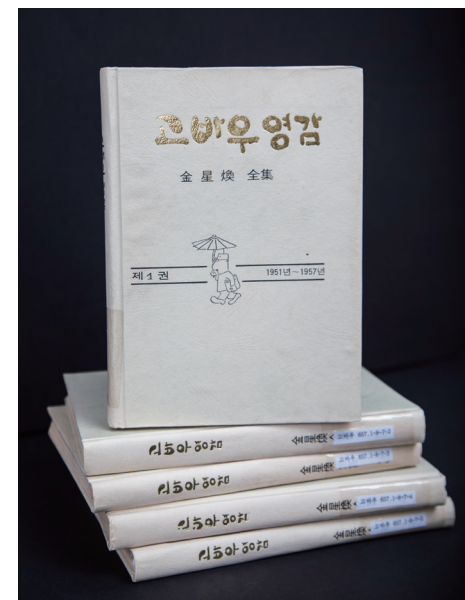
‘고바우’가 본격적으로 독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은 1955년 김성환이 <동아일보>에 ‘고바우 영감’을 연재하면서부터다. 김성환의 ‘고바우 영감’이 대중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권위주의적 정부를 비판하면서 시사성을 띠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김성환은 필화(筆禍)사건을 겪기도 했다(필화란 언론 등에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담은 창작물을 게시했을



때, 그 창작자가 법의 심판 등의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후로도 ‘고바우 영감’은 검열에 걸려 공란으로 나가기도 했고, 말풍선이 통째로 날아가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김성환은 무겁고 어두운 권력 앞에서도 특유의 재치와 유머 감각을 동원했고 복잡한 사회·정치적 사안들을 네 컷 안에 간결하게 응축해 웃음을 자아냈다. 1980년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언론사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김성환은 26년간 근무해 오던 <동아일보>를 떠나야 했다. 이때 <조선일보>로 옮겨 1992년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 ‘고바우 영감’의 연재를 이어갔고, 그 이후 <문화일보>에서 자리를 내주어 2000년까지 연재를 이어갔다.

서민들과 함께했던 시사와 풍자

이승만이 하야를 결정한 후에 김성환이 게재한 만화는 당시의 검열제도가 만화 창작 과정을 얼마나 방해했는가를 보여준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바우 영감> 만화집과 신문에 게재됐던 ‘고바우 영감’ 원화들.



첫 번째 컷에서 고바우 영감의 형체가 지워져 제대로 알아볼 수 없으나, 그 형태가 점차 뚜렷해지다가 마지막 컷에서야 고바우 영감의 형체가 원상태로 돌아온다. 고바우 영감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검열제가 폐지되어) 이젠 나를 찾았는데, 그동안 많이 상했구나!”라며, 비민주적 정치권력의 제재와 압박의 상황을 재치 있게 묘사한다.

제멋대로 검열과 가위질을 일삼았던 박정희 정권을 ‘옛장수’에 비유한 만화도 있다. 이 만화에서 옛장수가 고바우 영감에게 바둑을 두자고 제안하지만, 고바우 영감은 옛장수가 제멋대로 휘두르는 가위 소리에 정신이 팔려 바둑에서 지고 만다. 5.16쿠데타를 통해 새롭게 정권을 획득한 박정희는 ‘사이비 언론인 및 언론 기관 정화’를 명분으로 언론사를 폐지하고 검열 강도를 높인 바 있다.

전두환이 퇴임하며 노태우에게 “말씀이 없어질 때까지 한 손 갈씩 드시오”라며 선물을 전하는 장면도 있다. 다음 장면에서 노태우는 흐뭇한 표정으로 선물 포장지를 풀고 꿀단지 찾았던 순간을 떠올린다. 이내 노태우의 표정이 일그러지는데, 꿀단지에는 ‘光州사태’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두환이 퇴임식에서 노태우에게 광주사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풍자하며 해당 사태의 책임이 그 두 사람 모두에게 있음을 적시한다.

역사 속에 살아 있는 ‘고바우 영감’

네 컷 시사만화 ‘고바우 영감’은 국가권력이 억압의 강도를 높여가던 맥락을 배경으로 등장시켜 비판과 풍자의 정신을 유지했다. 해당 만화는 이승만의 권위주의적 정권과 박정희의 유신

정권, 전두환과 노태우의 군사정권, 민주화 이후의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을 관통하면서 산업화시대의 독자들을 위로하고 시사적 사안에 기민하게 반응했다. 정치권력이 만화의 의미를 제한하려고 할수록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을 확대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고바우 영감이 이용하고 있던 은유와 환유의 기법은 검열이 활발하게 시행되던 당시 좀 더 안전하게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었다.

김성환은 1996년 ‘고바우 영감’ 원화 114점을 비롯해 고바우 도자기, 고바우 그림 및 포스터, 고바우 만화집, 고바우 우표 등 376점을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했다. 반세기에 걸쳐 이루어졌던 시사만화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열다섯 번째로 김성환의 개인 문고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2000년 ‘고바우 영감’은 김성환 화백의 퇴임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그 후 ‘네 컷 시사만화’라는 장르는 급격하게 퇴조하고 주요 신문 만화 장르의 자리를 한 컷 만화에 내주게 되었다. 이는 ‘고바우 영감’이 한국 특유의 신문 만화 장르 ‘네 컷 시사만화’를 등장시키고, 이를 통해 비판과 풍자의 문화, 사회적 변화에 대한 상상력을 풍요롭게 해 주었다는 점을 말해 준다. ❶

방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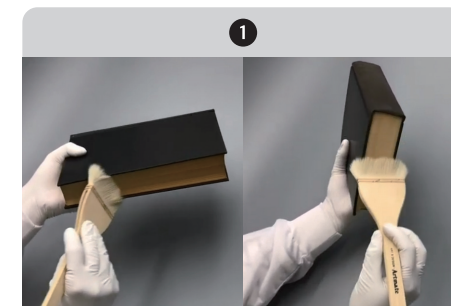
서강대학교 글로벌한국학과 대우교수다.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학사를,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후 미국 사우스플로리다대학교 (University of South Florida)의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The Candlelight Movement, Democracy, and Communication in Korea>(2021, 공저), <모빌리티와 생활세계의 생산>(2019, 공저), <김성환>(2018), <PD 저널리즘: 한국 방송 저널리즘의 일탈>(2008, 공저) 등이 있다.

45년의 세월을 건디는 건식세척법(붓, 건식세척용 스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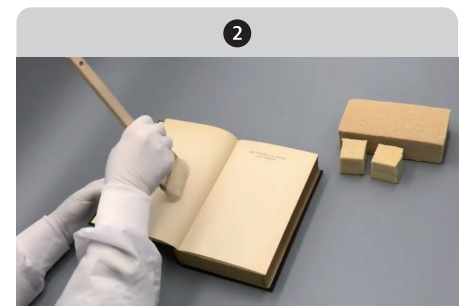
1955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45년간 연재되었던 시사만화 <고바우 영감>의 만화집처럼 오래된 도서자료의 세척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건식세척법을 실시하고 있다. 붓과 건식세척용 스펀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붓으로는 묵은 먼지를 제거하고 속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스펀지를 이용해 세척함으로써 도서 자료의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 건식세척용 스펀지가 없는 경우는 정전기 청소포를 여러 겹 접은 후 세척이 가능하다.

도서 자료 건식세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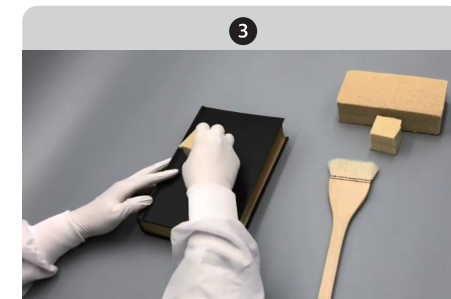
준비물 : 붓, 건식세척용 스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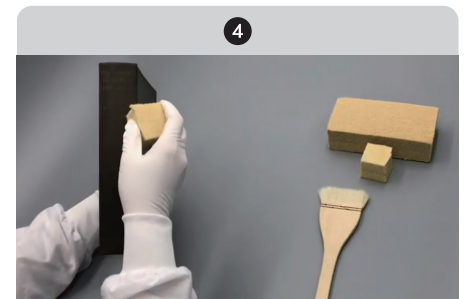
붓으로 책등, 앞뒤 표지의 겉과 안쪽의 먼지를 제거한다. 책머리, 바닥, 책 앞의 먼지를 제거할 때에는 먼지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한 손으로 책이 벌어지지 않도록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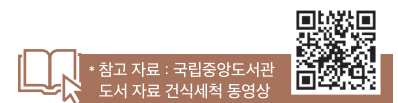
책머리와 바닥의 경우는 책등 쪽에서 책 앞쪽으로 쓸어내리고, 책 앞은 책머리 쪽에서 바닥 쪽으로 쓸어내린다. 내지도 같은 방법으로 먼지를 제거한다.



묵은 먼지는 건식세척 전용 스펀지를 사용하는데 방법은 표지의 경우는 원을 그리는 동작으로 표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힌지에 흠이 있는 도서의 경우 흠 부분의 먼지도 제거한다.



책머리, 바닥, 앞의 경우는 붓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먼지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는 책이 벌어지지 않도록 잡고 속지가 훼손되지 않게 건식세척용 스펀지로 조심하여 닦아낸다.



<시헌기요>

남병길

(南秉吉, 1820~1869)

조선에 새로운 하늘을 열어준
천재 수학자

19세기를 살아간 남병길은 천문학과 수학에 조예가 깊었다. 그는 일곱 권에 달하는 수학책을 저술했고, 조선의 달력 체계였던 시헌력(時憲曆)도 연구한 대표적인 조선의 수학자였다. 1860년 남병길은 시헌력의 요점을 정리한 <시헌기요(時憲紀要)>를 완성했다. 이 책은 여러 천체 현상의 계산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세기 조선시대 천문학과 수학의 발전 정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글 강채리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시헌기요>.

| 강채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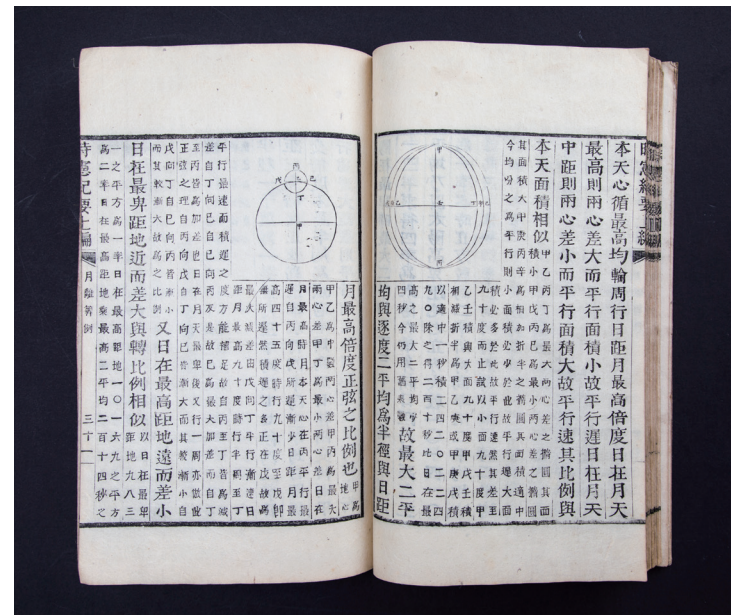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19세기 중반 조선산학의 등장'이라는 논문을 썼고, 현재도 조선시대 과학사를 연구 중이다.

천재라 불렸던 남병길 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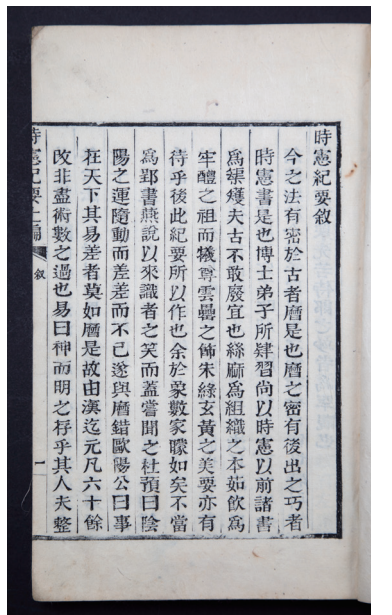
19세기 세도정치 시기, 중앙 조정에는 남병철(南秉哲, 1817~1863), 남병길 형제가 있었다. 의령 남씨 집안에서 태어난 이들은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를 시작한 김조순(金祖淳, 1765~1832)의 외손자들이었다. 형 남병철은 헌종과 철종의 신임을 얻었고, 예조판서와 대제학 등을 지냈다. 남병철 못지않게 동생 남병길도 출세의 가도를 달렸다. 남병길은 20대 후반에 조정의 관리가 되어 40대 후반에는 예조판서에까지 올랐다. 높은 관직에 오른 남병철과 남병길은 교유 관계도 화려했다. 그들은 김조순의 후손으로서 안동 김씨 사람들과 교류했고, 박규수(朴珪壽, 1807~1877), 김정희(金正喜, 1786~1856)와도 친밀히 지냈다. 그렇지만 이 두 형제를 관직 이력과 교류 관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남병철과 남병길은 당대에 천문학과 수학에 조예가 깊은 인물들로 유명했다. 두 형제는 관상감 제조, 즉 조선의 천문학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관상감을 이끄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동생 남병길은 특히 수학에 재능이 많았다. 그는 일곱 권에 달하는 수학책을 저술했는데, 이는 18세기 양반 수학자들이 한두 권의 수학책만 간행한 것보다 많은 분량이었다. 그가 남긴 수학책은 수준도 높았다. 17세기 이후 청나라를 통해 들어온 유럽 수학을 연구한 것은 물론, 18세기 양반 수학자들이 접하지 못한 중국의 전통 수학책들도 구해 읽었다. 그 결과 그는 미지수가 네 개까지 있는 다항방정식을 다루는 방법 등 이전 시기보다 심화한 수학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18세기 조선 수학자들보다 더 수준 높은 수학책을 많이 남긴 남병길은 주변 수학자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했다. 그는 중인(中人) 수학자 이상혁(李尙熾, 1810~미상)이 저술한 수학책 <산술관견(算術管見)>(1855)과 또 다른 양반 수학자 조희순(趙羲純, 생몰년 미상)을 위해 <산학습유(算學拾遺)>(1869)에 서문을 썼다. 흥미로운 점은 남병길이 남긴 서문에서 조선 수학에 대한 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청나라의 유명한 수학자도 이상혁의 업적을 보면 탄복할 것이라고 했고, 조희순의 성과를 보니 조선 수학이 중국에 부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시헌기요> 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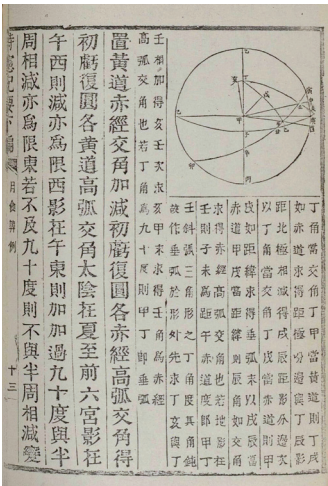
<시헌기요> 안에는 여러 가지 계산법이 적혀 있다.

러울 것이 없다고 적었다. 이처럼 수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조선 수학을 자랑스러워한 남병길은 천문학을 다룬 <시헌기요>를 저술했다.

조선 후기의 천문학 발달

남병길이 관상감 제조로 있던 시기, 조선 조정은 청나라를 따라 시헌력(24절기의 시각과 하루의 시각을 정밀하게 계산하여 만든 역법)이라는 달력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중국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달력의 체계와 이름을 변경해 하늘을 받드는 주체가 바뀌었음을 공표했다. 중국의 새로운 주인이 정해지고, 청나라의 황제는 시헌력을 새로운 달력 체계로 설정했다. 시헌력은 중국 천문학은 물론 유럽 천문학의 영향도 받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달력과 달랐다. 청나라의 제후국이 된 조선 조정은 시헌력의 체계를 따르되 한반도의 실정에 맞는 달력을 만들어야 했다. 병자호란의 패배 이후 인조 때에는 시헌력의 사용을 두고 고민이 이어졌다. 하지만 시헌력의 정밀성이 계속 증명되자, 17세기 중반 효종 대에 드디어 시헌력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천문학에 관심이 많은 양반들은 물론 전문 천문학자인 중인(中人) 관상감원들은 유럽 천문학의 영향을 받은 시헌력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매년 관상감원이 만든 달력은 청나라에서 받아온 달력과 다르기 일쑤였다. 간신히 오류를 고친 후에도 청나라에서 ‘케플러의 타원궤도 법칙(태양계 내부 행성들이 태양을 초점으로 타원궤도를 따라 운동한다는 법칙)’을 새로 반영해 달력을 만들자 조선 조정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남병길이 구면삼각법을 이용해서 월식을 계산한 부분.

그래도 조선의 천문학자와 관상감원들은 계속해서 시헌력을 연구했고, 정조 때에는 청나라의 계산이 틀리다고 주장하는 수준에까지 올라섰다. 시헌력의 연구가 계속 쌓여가는 상황에서 남병길은 청나라의 <역상고성(曆象考成)>(1723)과 <역상고성후편(曆象考成後編)>(1742)을 참고해 마침내 1860년 상·하편의 <시헌기요>를 저술했다.

천문학 계산 매뉴얼의 정점, <시헌기요>

<시헌기요>는 문자 그대로 시헌력의 중요한 점들을 추려낸 저서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남병길은 우선 역대 달력의 종류, 하늘과 땅의 구조, 황도와 적도의 움직임, 각 천체의 계산에 기준이 되는 수치, 지구의 공전주기가 미세하게나마 변하는 이유 등을 서술했다. 다음으로 해·달과 오성(五星)인 수성·금성·화성·목성·토성의 이동 거리와 위치, 월식과 일식 등의 계산법을 설명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매뉴얼의 성격이 강했다. 2022년 11월 8일 지구가 달을, 그리고 달이 천왕성을 가린 개기월식이 일어났다. 이러한 월식은 조선의 지배층이 중요하게 생각한 천문 현상으로, 남병길은 <시헌기요>에서 보름달이 뜨는 날짜와 시간, 월식이 지속하는 시간, 해당 날짜에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정도 등을 도출하는 계산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었다.

시헌력의 해·달·오성과 관련한 계산법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시헌기요>는 조선시대 천문학의 수준이 올라갔음을 보여주는 책이다. 천문학은 수학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 그리고 남병길이 여러 권의 수학책도 저술했다는 점에서 <시헌기요>는 조선시대 수학의 수준을 가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유럽 천문학의 영향을 받은 시헌력에는 당연히 유럽 수학도 반영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구면삼각법으로, 구면에 있는 삼각형의 변과 길이를 삼각법을 이용해 다루는 방법이다. 시헌력 도입 이전 조선의 천문학자와 수학자들은 구면삼각법에 대해 알지 못했다. 남병길은 이러한 구면삼각법을 다루고 이에 기반한 시헌력의 계산 과정도 설명한 것이었다. <시헌기요>는 조선 수학의 발전상도 보여준다.

“시헌력에 이르러서 중국과 유럽의 이론이 합쳐지고 원리가 파헤쳐졌다. 시헌력은 오랜 세월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줬다. 지금 두 편의 글을 모아 완성해 시험 교재로 만들었다. 배우는 사람들이 실마리를 찾고 방향을 알 수 있길 바란다.”

- <시헌기요> 하편, ‘발문’ 중에서

시헌력의 정밀함을 높이 평가한 남병길은 발문에서 <시헌기요>를 관상감원 선발 시험의 교재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의 저서가 시헌력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시헌기요>의 서문에는 이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1860년, 김조순의 손자 김병기(金炳冀, 1818~1875)는 관상감 제조를 겸직하고 있었다. 그는 관상감원을 선발하는 시험이 오래된 학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다가 <시헌기요>를 읽었고, 남병길의 저서를 관상감원 선발 시험의 교재로 삼아야 한다고 철종에게 건의해 동의를 받아냈다. 조정이 조선 양반이 서술한 <시헌기요>를 공인한 것은 그만큼 이 책에 믿음이 있었다는 뜻일 것이다. 조선 수학의 수준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던 남병길의 모습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 한다. ❶

참고문헌

남문현, 남종진 역주, <국역 육일재총서> 4·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4.

노대환, ‘19세기 중반 南秉哲(1817~1863)의 학문과 현실 인식’, <이화사학연구> 40, 2010.

문종양, <조선 후기 과학사상사: 서구 우주론과 조선 천지관의 만남>, 들녘, 2016.

전용훈, <한국 천문학사>, 들녘, 2017.

따뜻한 차 한잔과 함께 읽기 좋은 추천 도서

글 국립중앙도서관 사진 각 출판사

다크미러



언제 올지 모를 희망 말고 지금 행복했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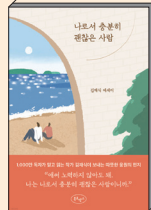
송정림 지음
자음과모음 | 2022

행복에 다가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내 곁에 행복이 있다는 진리를 간직하는 것. 또 하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 자꾸 알려줄 것. (188쪽)

이 책에 수록된 마흔 개의 이야기를 통해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혹은 아직 아픔을 겪으며 성장하고 있을 이들에게 전하는 작가의 진심 어린 조언을 전하고 있다. 1장 ‘오늘도 난 잘하고 있고 자라고 있어’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라는 존재의 의미와 자존감에 대한 내용을, 2장 ‘나답게 피어나면 된다고 말해 주는 당신이 있어서’에는 나 자신과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한 내용이, 3장 ‘나의 하루에 당신이라는 별이 들었네’에는 사랑과 이별의 내용이, 4장 ‘내가 힘들 때 그냥 꼭 안아주면 좋겠어’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견한 작은 깨달음의 내용이, 5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간직되는 시간들’에는 나이와 시간, 그리고 성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 저자 소개 - 송정림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라디오 청소년 드라마 <청소년 극장>으로 방송계에 데뷔하여 현재 드라마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너에게>, <하루 한 편, 세상에서 가장 짧은 명작 읽기>, <엄마와 나의 모든 봄날들> 등이 있다.

이미동해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

김재식 지음
북로망스 | 2022

부족한 나지만 나는 나를 놓지 않는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나는 나를 나만의 방식으로 사랑한다. 가끔은 괜찮지 않아 불안해 보여도 잘 살아낼 거라 믿는다. (106쪽)

이 책은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과 성찰로 많은 독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한 김재식 작가의 신작이다. 저자는 인간관계의 깨달음, 자존감, 인생의 고통을 이겨내자는 응원, 소소한 행복을 찾는 방법 등을 시로, 일기로, 때로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로 전하고 있다.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 느끼는 혼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힘든 심신을 다독이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공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는 인식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저자는 모두가 “그래, 당신 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자기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바란다. 스스로 보내는 위로와 응원의 힘을 믿고, 내 마음과 친해지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 저자 소개 - 김재식
국내 최대 규모 사랑 커뮤니티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의 운영자이자 작가이다. 지은 책으로는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좋은 사람에게는만 좋은 사람이면 돼> 등이 있다.

이미동해



그럴수록 우리에겐 친구가 필요하다

이룸트라우트 타르 지음
장혜경 옮김
갤러온 | 2022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기분이 드는 순간이 있다. ‘여기선 일부러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되겠구나, 온전히 나로 존재해도 되겠구나.’ (19쪽)

소중한 것을 나누며, 마음 터놓고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우리 주위에 몇 명이나 있는가? 미혼 청년이 증가하고 각박해지는 현대사회 속에서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우정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다. 우정이란 무엇일까. 친구란 어떤 존재여야 할까. 우정이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다양한 측면에서 우정을 고민한다. 우정이 왜 필요한지, 어른의 우정이란 어떤 것인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우정을 통해 배우게 된 것 등을 차근차근 풀어 놓는다. 친구와의 관계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길잡이 삼아 나를 나로 존재하게 하는 우정을 이루어나가면 어떨지.

✎ 저자 소개 - 이룸트라우트 타르(Irmtraud Tarr)
독일을 대표하는 심리 상담 전문가. 대학에서 음악과 신학, 심리학을 공부한 뒤 독일 라인펠덴에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나는 위로받고 싶다>, <내 안의 겁쟁이 길들이기>, <의미의 숲>, <고슴도치 길들이기> 등이 있다.

이미동해



안녕을 위하여

이승연 지음
초록비책공방 | 2022

안녕(peace)을 위해 안녕(good-bye)이 필요합니다. 부디 이 책의 제목대로 나와 나, 우리의 모든 안녕을 위한 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쪽)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안녕’이라는 말을 건넨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에게 건네는 두 글자. 안부를 확인하고, 평안을 기원하고, 작별을 고하는 ‘안녕’이라는 말에는 위로가 담겨 있다. 안녕을 통해 서로 주고받았던 따뜻한 마음을 그리워하며 새삼 안녕이 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이 책은 ‘안녕’이라는 다양한 층위의 말이 담은 위로를 영화와 책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있다. ‘준비하지 못한 이별을 위로하다’, ‘무너진 일상을 돌아보다’, ‘새로운 인생을 논하다’, ‘다시, 사랑을 키우다’라는 네 가지 주제를 20개의 키워드로 분류해, 스무 편의 영화와 책을 함께 소개한다. 팬데믹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가는 영화와 책을 통해 모두의 안녕을 얘기한다. ‘나의 안녕, 너의 안녕, 우리의 안녕’을 위해, 이 책에 소개된 영화와 책을 보며 이번 연말을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

✎ 저자 소개 - 이승연
<영화에게 세상을 묻다>, <영화가 말했다>를 공동 집필하고 <살고 싶어 몽테뉴를 또 읽었습니다>를 출간했다.

이미동해



가족 공부

최광현 지음
EBS BOOKS | 2022

가족은 우리가 정말 피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이자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17쪽)

누군가에게 가족은 사랑과 평화를 느끼는 가장 소중한 피난처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집의 근원이 되는 가장 위험한 전쟁터이다. 이 책은 가족이 피난처이자 위로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의 행복하고자 하는 의지만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가족 구성원 간에도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 ‘가족 공부’는 가족으로 엮인 수많은 관계 사이에 놓인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어가는 과정이다. 그 출발은 자기 자신과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로 여전히 인생에서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자신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보자. 이 책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 저자 소개 - 최광현
상담학자이자 한국인형치료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가족의 두 얼굴>, <사람이 힘겨운 당신을 위한 관계의 심리학>, <나는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등이 있다.

이미동해



마음은 괜찮냐고 시가 물었다

황인환 지음
웨이북 | 2021

타인과 비교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노력만을 동력으로 삼으면, “단 한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라고 고백하는 시의 화자처럼 정작 나의 장점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5쪽)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어령 님의 ‘정말 그럴 때가’라는 시의 첫 구절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외롭고 힘든 순간이 있다. 그럴 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책 속 한 문장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시와 마음은 많이 닮았다고 말한다. 나도 몰랐던 현재의 내 마음을 발견하고, 과거의 관계에서 생긴 마음의 매듭들을 풀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갖춰야 할 태도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들을 상황에 맞게 소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심리 이론으로 촘촘한 분석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 저자 소개 - 황인환
여의도힐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대표원장. 짧지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읽어야 하는 시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오래도록 들여다보려 한다.

이미지출처



봄은 언제나 찾아온다

데이비드 호크니,
마틴 게이퍼드 지음
주은정 옮김
시공아트 | 2022

나는 20층에 봉쇄된 사람이 가엾습니다. 뉴욕의 고층 건물에 갇히는 것이 그다지 좋을 순 없겠죠. 하지만 적절한 장소에 있으면 봉쇄가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매력적이죠. (111쪽)

이 책은 예술가 데이비드 호크니와 미술 평론가 마틴 게이퍼드의 10여 년간의 대화를 기록한 책 <다시, 그림이다>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던 2019년 봄, 호크니는 프랑스 노르망디에 있었다. 그는 그곳을 “봉쇄된 천국”이라고 표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는 사람들의 이동과 만남을 차단했지만, 자연의 흐름은 차단하지 못했다. 더 작고 작은 세상 안에서 더 많고 많은 것을 발견한다. 자연에서는 모든 것이 흐름 속에 있고, 사실상 봉쇄를 제외한 모든 것이 흐르고 있으니, 예술가 호크니의 예리한 시선은 그 흐름을 그림으로 포착해 낼 수 있었다. 게이퍼드는 호크니와의 대화를 통해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 책을 읽으며 예술가의 눈을 통해 단절 속에서 찾아낸 흐름을 찾아보고, 봉쇄도 막지 못한 봄의 위로를 기다려보면 어떨까.

요 저자 소개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회화, 드로잉, 무대 디자인, 사진, 판화 등 거의 모든 매체를 통해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저서로 <다시, 그림이다>, <영화의 비밀> 등이 있다.
마틴 게이퍼드(Martin Gayford)
영국을 대표하는 미술평론가 겸 작가. 저서로 <현대 미술의 이단자들>, <내가, 그림이 되다> 등이 있다.

이미지출처



위로의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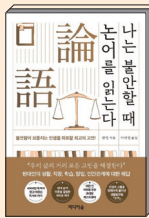
진병관 지음
빅피시 | 2022

그의 필사적인 노력이 비록 부질없다고 해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다면 분명 바다를 가르며 비추는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은 존재할지 모른다. (86쪽)

모든 절망을 경험했기에 모두를 위로할 수 있었던 예술가들의 이야기. 이 책은 총 네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날의 그림들’에서는 늦은 나이에 두려움 없이 도전했고, 다른 이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던 작가들의 작품을 다루고 있으며, 2장 ‘유난히 애쓴 날의 그림들’에서는 정신적·육체적 고통, 폭력적 시대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산 작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홀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를 낸 예술가들의 이야기 등을 소개한다. 작품 소개 말미에 ‘그림의 뒷면’ 코너가 있어 그림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치전 하루의 끝, 이 책에서 소개하는 25명의 화가와 명화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추운 겨울 얼어붙은 마음의 온도를 조금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요 저자 소개 - 진병관
파리 사진 전문학교(EFET)를 졸업하고 사진가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프랑스 문화부 공인 문화해설사(Guide-Conférencier)로 활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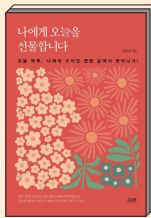
판덩 지음
이서연 옮김
미디어숲 | 2022

한 사람이 행복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다면 행복의 총량도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고통을 그렇게 힘들지 않게 느낀다면 삶의 고통도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310쪽)

나이 불문, 시대 불문, 인생의 불안을 다독여주는 최고의 고전 <논어>. 책의 저자인 판덩은 이 시대에 술술 읽힐 수 있는 논어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현대인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논어는 간단한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문장들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어 해석의 방향이 다양하다. 마치 우리의 삶과 같으며, 삶의 문제와 고난은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벅차고 고통스럽다. 저자는 공자의 지혜를 빌려 인생의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책을 통해 도와주고 있다. 논어의 해석은 지나치게 어려울 때가 많다. 삶의 어려움을 느끼거나 위로받고 싶을 때, 초조하고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이 책을 읽는다면 내 마음에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요 저자 소개 - 판덩(樊登)
‘판덩 독서’의 창시자로, 오디오 북, 동영상, 이미지 등을 활용해 책을 설명해 주는 활동을 한다. 주요 저서로는 <아이와 함께하는 평생 성장>, <아이 마음 읽는 법> 등이 있다.

사회과학



나에게 오늘을 선물합니다

김나위 지음
다연 | 2022

내 인생의 목표도 소중하지만 바로 이 순간의 나도 소중하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내가 너무 큰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그때그때 마음과 몸을 살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147쪽)

인생이 어렵고 삶이 불안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일 때, 나만 늘 제자리라는 생각이 들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고 한탄한다. 저자는 일상에서 겪게 되는 이러한 고달픈 순간에 자기를 위로하는 셀프 힐링의 필요와 방법을 이야기해 준다. 1부에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2부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3부에서는 오늘이 우리에게 선물임을 확인하게 하는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와 용기를 얻고 싶을 때,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가끔은 힘이 필요할 때, 이 책을 통해 나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며 스스로 살피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요 저자 소개 - 김나위
김나위경영연구소 소장과 장안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밸런스 열정을 완성시키다>, <성공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 등이 있다.

사회과학



고립의 시대

노리나 허츠 지음
홍정인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 2021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이 세계를 하나로 모으려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공동선과 다시 연결하고 자본주의의 심장부에 돌봄과 온정과 협력을 놓아야 한다. (32쪽)

저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물리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외로움이 확산되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말한다.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국가와 시민, 개인과 개인의 유대가 무너져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치적인 극단주의를 초래하는 등 사회계층 간의 갈등을 일으켜 사회통합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비대면 시스템의 확대,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초연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제각각 스마트폰에 고립되어 있다. 우리는 ‘늘 함께 있지만 늘 혼자’인 상태에 머무른다. 이 책은 우리에게, 서로에 대해 관심을 두고 돌봄과 온정으로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다면 ‘고립의 시대’는 극복될 것이라고 말한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구조에 휩쓸리며 무기력감을 느끼는 개인에게는 세상을 분석하고 알고 대응하려는 노력 자체가 위로이자 힘이다. 앓을 통한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요 저자 소개 - 노리나 허츠(Noreena Hertz)
영국의 경제학자이다. 2014년부터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세계변영연구소의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가 있다.

자연과학



지구를 살리는 옷장

박진영, 신하나 지음
창비 | 2022

옷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고 많은 물과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한번 만들어진 옷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일은 훨씬 더 어렵다. (61쪽)

계절이 바뀌고 한 해가 지나면 찾아오는 옷장 정리 일이 만만치 않다.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옷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저자들은 이 책에서 패션 산업과 지구, 환경, 인류의 연결고리를 파헤친다. 패션 산업의 모든 과정에서 수많은 의류 쓰레기가 생산되고 이는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 환경 파괴적으로 구조화된 패션 산업에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이 과연 가능할까? 나 하나가 하는 작은 실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무기력한 질문이 드는 순간, 저자들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가치에 동참하는 브랜드와 패션계의 동향을 알려준다. 실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작은 실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환경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요 저자 소개 - 박진영·신하나
동료로 만나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는 브랜드 닷아워스(NOT OURS)를 론칭, 운영 중이다. 두 사람 다 비건으로,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김지연 미술평론가와

마포구립서강도서관

가까이 있어 더 귀한

1층에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파트 단지로 차가 들어 오는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었으니까. 화요일이면 베란다에서 고개를 내밀고 이야기들이 도착하길 기다렸다. 2주에 한 번씩 찾아왔던 성동구 이동도서관은 작은 버스였지만 내겐 큰 세계였다. 좁은 책장 사이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책을 고르고, 아쉬운 마음으로 딱 세 권, 아니 사실 동생 뉘까지 여섯 권을 내가 다 빌렸다. 2주 치 행복이었다.

글 김지연 사진 김지연,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소설 <비블리온>(문지현, 2018)은 책이 금지된 세상을 상상한다. 주인공은 책을 읽을 수도, 소유할 수도 없는 사회에서 살아왔다. 그는 책을 지키려다 죽은 아버지가 남긴 단서를 손에 쥐고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생에 단 한 번도 책을 만져본 적 없는 삶은 어떤 것일까 가능해 보였지만, 그러기엔 내 손에 새겨온 종이책의 감각이 너무 생생하다. 늘 가까이에 책이 있었다. 엄마는 프뢰벨과 메르헨, 에이브 전집으로 서가를 채워 주었고, 출판사에서 일하는 엄마의 친구는 때마다 신간 꾸러미를 선물해 주셨다. 저녁마다 아빠의 퇴근보다 더 기다린 것은 을지서적의 봉투였다. 그럼에도 부족했던 독서욕은 이동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엄마가 근무하던 학교 옆의 동대문도서관까지 이어졌다. 높은 서가 사이를 거니는 것은 뻑뻑한 숲을 탐험하는 일과 같았고, 나는 작은 손에도 잡히는 종

이 뭉치 안에 다른 세계로 가는 문과 오만 가지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일찍이 알아버렸다.

가장 가까운 도서관

특히 책이 넘치는 대학 도서관은 정말 짜릿했다. 도서관이 아쉬워 방학에도 집에 내려가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도서관은 내게 등을 돌렸다. 책을 대출하기 위해서는 졸업증명서는 물론, 20만 원의 보증금과 재학 혹은 재직 중인 보증인 두 명의 서명이 필요했다. 그 방대한 서가는 모두 사립대학의 등록금이라는 대가가 있어야만 제공되는 장소이며,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진리를, 책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지 않다는 현실을 새삼 깨달았다.

학교 다닐 때에는 돌아보지 않았던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집에서 길 하나 건너 곳에 자리한 마포구립서강도서관(이하 서강도서관)이었다. 의외의 발견이었다. 예술 관련 종사자나 미대생이 많은 지역이라서인지 예술 도서가 생각보다 많았다. 베스트셀러 소설이나 에세이 외에는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아 대출도 쉬운 편이었고, 한 달에 두 권의 희망 도서를 신청하면 대체로 모두 승인되었다. 원하는 책을 볼 수 있는 자유도가 꽤 높았다.

서강도서관 앞에 살던 5년 동안, 긴 수험 생활에 지칠 때 서가를 산책하러 갔고, 이후에 쓰는 삶을 시작하고부터는 자료를 찾고 글을 쓰기 위해 그곳을 계속 찾았다. 적은 원고료만으로 필요한 책을 모



1. 입구에서 바라본 종합자료실 서가 모습.
2. 노트북과 PC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실.
3. 햇살이 들어 책 읽기 좋은 종합자료실 창가 자리.

두 사들이기 어려웠던 초보 작가 시절에 가까운 도서관은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 당시에 쓴 글은 모두 이 작은 도서관에 빛지고 있다.

경계 없는 공간

서강도서관은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있고 열람실도 따로 없다 보니 공부하는 젊은 사람들만 몰리는 분위기가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을 볼 수 있었다. 손을 잡고 온 아이와 부모, 아침부터 신문을 읽으려



김지연 |
현대미술과 도시문화를 비평한다. 책 <반짝이는 어떤 것>, <마리나의 눈>, <보통의 감상>을 썼다. 문화예술 비평지 <크리티크M>의 편집위원이며, <르몽드 디폴로 마티크> 외 다수 매체에 기고한다.



1



3



1. 사서와 매거진 <책> 에디터가 함께한 기획전시 모습.
2. 출판 창작 공간 'Book C'의 모습.
- 3,4. 김지연 미술평론가의 저서 <반짝이는 어떤 것>, <마리나의 눈>.
5. 독특한 서가와 테이블이 인상적인 어린이자료실.

은 노인, '개인 공부 금지'라는 안내문의 눈치를 보며 공부하는 학생 몇몇, 때로는 추위나 더위를 피하러 들어온 노숙자까지.

나는 그를 알고 있었다. 긴 겨울 동안 보이지 않으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염려될 정도로, 하루 이틀에 한 번씩은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혼자 어둑한 거리를 걷다가 무언가 쭈고 있는 그를 마주칠 때면 늘 경계심을 품었다. 세상에 조심해서 손해 볼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를 도서관에서 마주치기 시작했다. 신문이나 책을 뒤적이고 있었다.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였을까, 정말 호기심과 지적 욕구에서였을까. 잘 모르겠다. 처음 도서관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늘 그랬듯이 경계했지만, 그의 시선이 책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내 경계심이 풀렸다. 책을 손에 쥐는 감각과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을 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경계할 필요가 없었다.

시인 크리스티앙 보뱅은 책 <작은 파티 드레스>(2021)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경계는 돈의 경계보다 더 폐쇄적”이라고 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는 눈에 띄는 벽이 자리하지만 이 벽은 유동적이고 군데군데 무너져 내리기도 한

다. 그러나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 사이의 벽은 땅속 깊은 곳, 얼굴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같은 동네에서 얼굴을 마주치며 섞여 사는 사람들이지라도 마트, 식당, 카페 등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곳에선 자본이라는 확실한 경계가 있다. 그러나 그 작은 도서관에서 우리 모두는 단지 책을 읽는 사람이었다. 누구든 함께 섞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이었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일

도서관은 한 사회가 교육과 지식의 나눔에 있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여주는 민낯이다. 소설 <비블리온>에서 주인공은 상위 계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도서관을 발견하고 만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은, 책을 통해 배우는 ‘내면’이란 선택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지식을 나누지 않는 것은 다른 문을 열어볼 기회를 박탈하고 성장의 기회에서 배제하겠다는 뜻과 같다. 소설이 아닌 현실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평등하게 ‘내면’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까.

성인이 된 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의 다른 문을 열기란 개인의 노력만으로 쉽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가까이에 도서관이 있고 쉽게 드나들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당시 내가 경험한 서강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었다. 어떤 사람이든 제한 없이 드나들 수 있었고, 작은 서가가 충실하게 채워져 있었다. 어른과 아이를 위한 강의가 수시로 열렸고, 주민들은 어린이자료실에서 책 수선 봉사를 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게 ‘내면’을 가질 기회를 얻었다.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지만 각자에게 단단한 내면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한, 이름과 얼굴을 몰라도 서로를 믿을 수 있다. 안정된 사회는 그런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그곳에서 헬싱키의 오디(Oodi) 중앙도서관을 떠올렸다. 그곳은 장애인과 노인, 아동은 물론 여행객까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책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과 모임, 연구를 위한 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된 지식의 허브로, 오늘날의 핀란드가 교육과 평등을 대하



는 자세를 보여준다. 나는 이 작은 도서관 역시 내가 살던 곳의 얼굴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집 앞의 서강도서관에서 넓게 멀리 볼 수 있는 문을 열었고 한편으론 책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당연하지만 먼 곳에 있는 사실을 깨달았다. 크고 멋진 도서관이 어디에든 있는 환상을 꿈꾸지만, 역시나 현실에선 가장 가까운 도서관이 가장 가까운 구원이다.

나만 알기 아까운 비밀

운 좋게도 책과 가까운 삶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책을 손에 쥐는 감각이 익숙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비블리온>에서처럼 책을 법으로 금지하진 않지만, 부족한 접근성은 거꾸로 읽으면 금지와 다름없다. 누군가는 손 닿는 곳에 책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기 어렵다. 지금의 나는 필요한 책을 원하는 대로 사볼 수 있지만, 혹여 그러지 못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여전히 책에 쉽게 닿고 그것을 양분 삼아 계속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랬듯이 다른 누군가도 가까운 도서관에서 그렇게 읽고 쓰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하나, 지금 읽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날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 손을 뻗었을 때 쉽게 닿을 수 있다면 좋겠다. 내가 언젠가 서강도서관에서 보았던 누군가처럼, 단지 더위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라도 도서관의 문을 열 수 있다면 책과 가까운 삶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비평 작업을 하면서 되도록 어려운 언어를 피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어느 날 우연히 내 책을 펼친 사람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저 단어가 어렵고 문장이 난해하여 읽기를 그만두는 일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쓴다. 삶의 겹을 부풀게 해 주는 수많은 이야기는 먼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도서관에 차곡차곡 꽂혀 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누군가에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 비밀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❷



마포구립서강도서관

2008년에 개관해 ‘새로운 시작, 나를 스타트-업 하는 도서관’을 운영 철학으로 지역 주민과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대표적 프로그램으로는 도서관 초대석, 집중 인문학, 길 위의 인문학 등 차별화된 인문학 프로그램과 호모 부커스 등 함께 깊이 읽기, 메이커 스페이스 ‘해봄’, 출판 창작 공간 ‘Book C’ 등이 있다.



-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65(창전동)
- ☎ 전화 : 02-3141-7053
- 🕒 운영 시간 :
 - 종합/디지털자료실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 어린이자료실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 📅 휴관일 : 화요일 및 법정 공휴일



차분한 열정과 식지 않는 진심이 있는 도서관

브라질 도서관

글 김윤아 사진 위키피디아, shutterstock

브라질을 정의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열정’일 것이다. 2017년 <CNN 트래블>은 브라질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땅은 삶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하다”고 소개했다. 열정은 흘러서 도서관에 고인다. 인스타그램의 성지로 등극하거나 도시 한가운데 등대로 변하며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도서관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역시 열정이다. 열렬한 애정으로 몰두하는 모습. 화려한 외면 속 빛나는 진심이 보일 때, 마침내 도서관과 사랑에 빠진다.

REAL GABINETE PORTUGUÊS DE LEITURA

0	1
Real Gabinete Português de Leitura	

변치 않는 진심이 있는 도서관

왕립 포르투갈어 도서관

브라질의 왕립 포르투갈어 도서관(Real Gabinete Português de Leitura). 2014년 미국 <타임지(Time)>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4위로 선정했음에도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곳은 이름만큼 오묘하다. 브라질에 자리한 도서관에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이름이 들어가게 된 사연, 유명세 없는 명소가 된 이유는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

1500년 이후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브라질은 1822년 독립을 이뤘다. 그리고 15년 후, 브라질에 거주하던 43명의 포르투갈 이민자들로부터 도서관 역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상인, 변호사, 언론인 등 당대의 지식인이 대부분으로, 본국과 사상의 차이로 인해 이주해야 했던 인물들이었다. 나라를 떠나야 했지만 정체성을 잃을 수 없었기에 자국의 언어와 역사, 문화를 위한 도서관을 설립했다. 책을 읽기 위함이 아니었다. 글로 써왔고 글로 지어갈 역사와 미래를 새로운 땅에서 다시 건립하기 위해서였다.

역사적인 작품을 수집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포르투갈 대문호 루이스 드 카몽이스(Luís de Camões)의 1500년대 초판본 작품과 항해사 바스쿠 다가마(Vasco da Gama)의 인도 행선을 기록한 작품을 비롯해 고대의 그림, 조각, 동전 등 자국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방대하고 특별한 책과 예술품을 소장할 수 있었다.

장대한 작품이 축적되고 1880년 현재의 리우데자네이루 거리에서 새롭게 도서관 건물을 착공했다. 외관은 물론 선반과 장식, 바닥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상징을 새겨낸 작업은 무려 70여 년이 걸렸다. 완성된 공간의 중심인 천장에는 햇빛이 모여드는 주철 채광창 아래 걸린 화려한 샹들리에 주변으로 신비로운 빛이 감돌고, 3층 높이에 이르는 거대한 책장은 짙은 녹색과 금빛이 어우러져 기품이 배어난다. 철과 청동으로 정교히 조각된 계단과 난간은 위엄 있는 자태를 드러낸다. 건물 외관에는 포르투갈의 대항해 서시를 기록한 문장과 그림이 새겨졌고, 탐험가들의

1. 왕립 포르투갈어 도서관의 건물은 녹색과 금빛이 어우러진 3층 높이의 거대한 책장 모습.

김윤아

뉴욕, 런던, 파리, 리스본, 시카고 등 50여 곳의 해외 서점을 탐방한 기록을 담은 책 <서점 여행자의 노트>를 썼다. 다수의 매거진에 서점 여행을 주제로 한 칼럼을 기고했다. 종로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사진과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시한다.

동상이 입구에 전시됐다.

도서관은 리우데자네이루의 습한 기후와 화재를 견딜 수 있도록 철제 골조로 마감됐고, 단단한 자카란다 나무로 선반이 구성됐다. 1990년에는 공공도서관으로 모든 이에게 문이 열렸고, 브라질의 문학학자였던 라미즈 갈바오(Ramiz Galvão)가 새로운 서가 구성과 작품 배치를 맡았다. 독특한 역사와 각별한 의미를 지니며 포르투갈 정부는 1906년 도서관에 '왕립'이라는 칭호를 부여했고, 이후 1935년 본토에서 새로 발간된 출판물을 보내며 공식적으로 납본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35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는 도서관은 매년 6천 여권의 책을 납본받고 있다. 이와 함께 브라질과 포르투갈의 문화 교류를 위한 연구소(Real Gabinete Português de Leitura)를 설립해 양국의 문화 및 역사 전문가와 강의, 학회, 콘퍼런스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또한 기록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며 학제 간 경계를 넓히기 위한 온라인 저널(Convergência Lusíada)을 발행해 왔고, 국가 간 대학과 협력을 구축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 인류학, 사회학 분야 및 예술 과정을 홍보하며 교육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브라질 월드컵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기점으로 숨겨졌던 아름다움이 전 세계에 드러나며 인스타그램의 성지로 등극했지만, 도서관은 개의치 않는다. 왕립 도서관, 국립 문화재 연구소, 텍토



1. 왕립 포르투갈어 도서관 외관 모습.
2. 포르투갈의 항해사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랄의 동상.



커(TikTok, 틱톡 크리에이터)의 성지라는 별칭보다 단 하나의 이름이 어울리는 곳. 왕립 포르투갈어 도서관에서 관광객을 위한 투어나 이벤트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자료를 찾는 연구자와 그들을 돕는 사서가 묵묵히 자리를 지킬 뿐이다.

0	2	
F a r o i s d e S a b e r		

변두리에서 도시를 밝히다

지혜의 등대 도서관

브라질 남부의 쿠리치바는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도시라는 찬사를 받는다. 도시 개발을 혁신적으로 이뤄내며 교통과 인프라, 에너지 재생 사업 등도 모범 사례로 꼽히지만, 많은 도시가 쿠리치바를 롤 모델로 삼는 이유엔 무엇보다 시민이 있다. 모두가 이끄는 도시의 성장. 소외 계층도 예외는 아니다. 쿠리치바는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 위주로 방법 기능과 문화 공간을 갖춘 등대 도서관을 설치했고, 주민들은 점차적으로 동네의 성장을 이끌기 시작했다.

도시 외곽에서 생긴 지혜의 등대(Faro de Saber), 일명 등대 도서관은 고대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등대의 원형이라 불리는 파로스 등대를 합한 모습이다. 1994년 쿠리치바 메르세(Mercês) 마을에서 브라질의 작가 조아킹 마리아 마샤두 지 아시스(Joaquim Maria Machado de Assis)의 이름을 따

3. 시립 학교와 연결된 지혜의 등대 도서관 모습.
4. 등대 내부는 철제 계단을 통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FAROIS

DE SABER

서 개관한 이래, 단숨에 마을의 상징이 되었다. 이후 유명 학자와 문인의 이름으로 곳곳에서 개관해 온 도서관은 어느덧 50여 개의 등대로 늘어나 도시를 비추고 있다.

등대는 좁고 높다. 높이 16m, 면적 98㎡로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작은 마을에 제격이다. 넓지 않지만, 넓게 활용한다. 1층엔 아동문학, 인류, 지리, 각종 사전을 중심으로 6000여 권의 책을 비치했고 2층은 학습과 토론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했다. 맨 위층은 치안을 위한 망대로, 외관만 닮은 것이 아니라 실제 등대의 기능을 갖췄기에 낮에는 도서관, 밤에는 도시를 밝히는 등대가 된다. 이는 지역과 관련이 깊은데, 도서관이 설치된 곳은 대개 낙후 지역으로 교육 여건과 치안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다.

도서관은 주로 학교 인근에 지어진다. 그래서 출입문 중 한 곳은 길가로, 다른 한 곳은 학교로 연결되는데, 이는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편의인 동시에 도서관이 지향하는 바를 가리킨다. 교육 공간의 확장, 지식에 대한 활발한 접근. 이로써 지적 활동이 곧 여가 생활이 되고, 개인의 학습이 공동체의 문화가 되도록 이끈다. 이를 위해 연구 지원, 독서 모임 운영, 작가 초청은 물론 창작 공간(making room)에서는 새로운 언어와 기술로 아이디어를 구현하게 돕는다. 일례로 프로그램 언어와 3D 프린팅 작업 등 최신 기술을 학습한 후 게임, 설치미술,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도서관과 학교 웹사이트 등에 게재되고, 지역 행사와 축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쿠리치바는 브라질 주요 도시 중에 가장 낮은 문맹률과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한다. 모두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중심

이 되기를 선택한 도서관에는 많은 책이 아니라 동네에 필요한 책이 있다. 최신 기술보다 일상에 활용하는 법이나 나의 배움이 곧 타인에 도움이 되는 과정이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지혜의 등대 도서관이 동네를 밝히며 범죄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건 빛의 세기가 아닌 방향임을 보여주는 곳. 낮에는 사람이 모이고 밤에는 사람을 비추는 곳. 쿨리치바에서 등대는 도시를 비추고, 시민을 밝힌다. ❶



브라질 도서관 정보


01. 왕립 포르투갈어 도서관
(Real Gabinete Português de Leitura)

🕒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토·일요일 휴무)

 R. Luís de Camões, 30-Centro, Rio de Janeiro-RJ,
20051-020, Brazil

02. 지혜의 등대 도서관 (Farois de Saber)

⌚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일요일 휴무)

 JULIA AMARAL DI LENNA 시립 학교 옆 등
쿠리치바 지역 곳곳

올겨울은 조금 더 천천히 넘겨보세요

책과 함께 머무는 도서관에서의 하룻밤

글 류민정 사진 각 도서관

겨울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으며 사유하기에 딱 맞는 계절이다. 찬바람을 막아주는 따듯한 숙소와 바라만 봐도 탁 트인 풍경과 함께라면 금상첨화. ‘stay(머물다)’와 ‘vacation(휴가)’을 합친 신조어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이 책과 만나 ‘북스테이케이션’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젠 단순히 관광과 잠을 위한 여행이 아닌 ‘머물고, 공간을 느끼는’ 여행이 주목받는다. 이에 코로나19 때문에 숨어 있던 숙박 시설을 갖춘 도서관도 떠오르고 있다. 캠핑장부터 한옥, 숲속 북스테이까지 다양한 유형별 숙소에서 새로운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해 보자.

| 류민정 |

그림책 스토리텔링 교사이자 자유기고가이다. 주로 기업 사보와 각종 웹진에 인터뷰나 취재 원고를 쓴다. 아이들과 책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며, 취재로 만난 사람과 공간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쁨을 느낀다.



오산 꿈두레도서관 독서캠핑장

꿈두레도서관 바로 뒤에는 알록달록한 원통형 캠핑장이 있다. 2020년 완공되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오픈하지 못하다가 2021년 3월 문을 열었다. 내부는 편백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주변이 모두 숲속 산책로로 꾸며져 있고, 곳곳에 책이 꽂혀 있는 ‘숲속의 작은 책방’이 마련되어 있는 데다 도서관이 바로 앞에 있어 캠핑장과 숲속 전체가 북스테이 공간이 된다. 특히 이용 조건이 퇴소 시 자녀와 함께 작성한 독서 소감문을 제출해야 하기에 진정한 북스테이를 즐길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자유롭게 해 먹을 수 있도록 개인 냉장고와 취사 공간도 마련되어 한겨울 가족과 함께 동화 같은 추억을 남길 수 있다.

📍 경기도 오산시 세마역로 20(세교동) 세교파출소 뒤
☎ 031-8036-6533 🌐 www.osanlibrary.go.kr

운영 일시 주 2회(회당 8개동 8가족)

- 1회 : 금요일 오후 4시~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4시~오후 10시 입소, 다음 날 오전 11시 이전 퇴소)
- 2회 : 토요일 오후 4시~일요일 오전 11시
(오후 4시~오후 10시 입소, 다음 날 오전 11시 이전 퇴소)

이용 자격 및 조건 오산시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오산 시민, 5세 이상~중학교 3학년생까지의 자녀를 동반한 가족, 퇴소 시 자녀와 함께 작성한 독서 소감문 제출

이용 방법 오산시도서관 누리집(www.osanlibrary.go.kr)에서 가족 단위로 매월 1일 다음 달 이용 예약 선착순 신청 접수

이용료 무료



1. 오산 꿈두레도서관 전경.
2. 원통형의 캠핑동.
3. 숲속 산책로를 거닐며 책을 읽을 수 있다.
4. 원통형 캠핑장에 이어 나무집으로 된 캠핑장도 이용 가능하다.





한옥 고택

충청남도 금산지구별 그림책마을

금산지구별 그림책마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그림책 마을이다. ‘0세부터 100세까지 3대가 함께 읽는 그림책 마을’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마을 본관인 ‘넉점반 도서관’에는 선별된 100권의 그림책이 전시되어 있고, 영유아를 위한 ‘행복한 도서관’이 따로 마련되어 아이들이 도서관을 놀이터 삼아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넓은 공간을 활용해 상상 속 그림책 버스도 운영하며 100미터가 넘는 ‘책 읽는 메타길’과 다채로운 형태의 숙소도 마련되어 온 가족이 동심을 느끼면서 책과 자연을 즐길 수 있다. 180년 된 전통 가옥 다섯 채는 옛 지붕의 서까래나 고풍스러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색다른 추억과 여유를 선물해 준다.

📍 충남 금산군 진산면 장대울길 52(지방리)
☎ 041-753-6567 🌐 <http://grimbook.net>

입·퇴실 오후 3시~다음 날 오전 11시

이용 방법 여행 날짜를 정하고, 누리집 ‘예약·문의’ 게시판을 이용, 북스테이 담당자와 전화 통화로 예약 확인. 금구당은 계절에 관계없이 계속 운영하고, 서유당과 조양서원은 3~11월 운영.

이용료 누리집 확인



1. 한옥으로 구성된 그림책마을 고택 스테이 전경.
2. 깔끔하게 정돈된 내부 모습.

경상북도 의성서당 작은도서관

경북 지역의 양반 마을로 유명한 의성군 점곡면에는 100년이 넘는 류씨 종택을 보수한 한옥 도서관과 숙소가 운영 중이다. 하루에 딱 한 팀만 받는 이곳에는 실제로 일주일에 2회 사서가 방문하여 책을 관리하고 있으며, 동화책과 교양서적 등 마을에 필요한 책이 알차게 꽂혀 있다. 고택 특유의 나무 냄새와 고즈넉함으로 가득한 숙소에서 가만히 앉아 책을 읽다 보면 단 하나의 문장만 읽는다고 할지라도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다.

📍 경북 의성군 점곡면 점곡길 33(서번리)
☎ 0507-1302-7259 🌐 <https://uisungseodang.modoo.at>

이용 방법 에어비앤비 또는 누리집 방문

이용료 누리집 확인



3. 한옥의 정취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의성서당의 출입구.



야외 캠핑

경상남도교육청 합천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80년 역사를 가진 송산초등학교가 폐교한 자리에 마련된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은 독서 체험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마당에 있는 방갈로를 빌리거나 캠핑 데크에 텐트를 치는 식으로 가족 북 캠프를 운영 중이다. 가야산독서당은 조선시대 국가의 중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건립한 전문 독서 연구기구인 ‘독서당’과 합천 대표 ‘가야산’을 합친 말이고, 정글북이란 단어는 마음을 ‘정’화하고 책이 가득한 공간이라는 의미다. 도서관과 북카페 등 캠프가 이루어지는 학교 곳곳에서 인형극, 마술 쇼는 물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독서뿐만 아니라 추위를 잊을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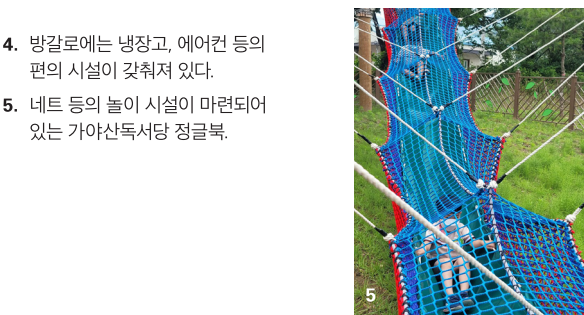
📍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안대전길 18-6(매안리)
☎ 055-933-1611 🌐 <https://junglebook.gne.go.kr>

운영 일시 학기 중 매주 토요일, 방학 중 매주 화·목·토요일

이용 대상 경남 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가족

이용 방법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누리집에서 선착순 예약 완료 후 사용료 납부

이용료 방갈로 주중 2만 원·주말 3만 원, 데크 5000원



4. 방갈로에는 냉장고, 에어컨 등의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5. 네트 등의 놀이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6. 방치되었던 폐교를 활용한 금곡작은도서관 전경.
7. 칠판이 있던 교실에서 북 콘서트를 진행하는 모습.

경기도 파주시 금곡작은도서관·별난독서문화체험장

일제강점기에 개교했던 금곡초등학교가 폐교 후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2015년 ‘독서가 있는 캠핑장’으로 재탄생했다. 그리고 현재 금곡작은도서관이 함께 있는 ‘별난독서문화체험장’으로 탈바꿈했다. 마을 소통의 장은 물론, 문화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별난독서문화체험장은 매월 셋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1박 2일 캠핑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독서, 문화로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계절에 따라 프로그램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누리집을 참조해야 한다. 📍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1315(금곡리)
☎ 031-959-9560 🌐 <https://bookculture1315.modoo.at>

운영 일시 매월 셋째 주, 넷째 주 토요일
(입실 오후 2시, 퇴실 다음 날 오전 11시)

이용 방법 -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선착순 마감. 취소로 인한 자리가 생길 경우 대기자에게 개별 연락함) 접수 시작
- 누리집 내 ‘신청 및 문의’ 게시판 접수 글 등록 후 안내 문자에 따라 데크 사용료 입금(현장 접수 또는 전화 접수는 받지 않음)

세부 프로그램 안내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이용료 프로그램 무료 운영, 데크 사용료 2만 5000원(계좌이체)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를 응원합니다

방송인

타일러 라쉬

Tyler Rasch

타일러 라쉬

미국 출신 방송인으로, 시카고대학교에서 국제학,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교학을 전공했다. JTBC <비정상회담>을 통해 8개 국어를 하는 언어 천재, '외색남'의 모습을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이후 <문제적 남자>,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등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어린 시절부터 환경에 관심을 두고 2016년부터 WWF(세계자연기금)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국인과 활발히 소통 중인 타일러 라쉬를 만났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며 올해 관련 책을 펴냈던 타일러 라쉬. 그가 한국에서 이루고 있는 모든 행보에는 거침이 없어 보인다. 불확실한 미래와 낯선 한국 땅에서 어떻게 그는 굳건히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비결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안부와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발자취가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타일러 라쉬는 바라고 있었다.

진행 이혜민 사진 안호성

1.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작가이자 방송인 타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2.

미국에서 국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며 한국에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 어떠신가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에 다니며 늘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국에 머무르며 공부하기보다는 한국으로 가면 훨씬 더 습득 조건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하거나 일을 할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대학원을 통해 한국으로 올 수 있었죠.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 공부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들이 생겨서 한국에 이렇게 정착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2, 3년 정도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12년 차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산다는 건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도가 좀 높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3.

방송인으로서 활동하시다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미국 동북부에 있는 굉장히 자연이 풍부한 지역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 일상 속에 자연이 큰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죠. 제가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인식이 굉장히 컸습니다. 기후 위기라는 문제가 있고 인간의 활동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이 오면 확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후 위기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엄청난 위협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말하지 못하면 앞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경각심이 저에게는 강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쓰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먼저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결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4.

항상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인 모습이십니다. 살면서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어려움이 있거나 우울할 때 '그래 난 어려워도 돼. 나는 우울해도 돼'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누가 항상 힘차고 긍정적이고 웃고 다니겠어요. 그게 이상한 거죠. 우울해도 되고 울어도 되고 포기해도 되고 짜증나도 되고 화나도 되고 그런 거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느끼는 감정들을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대신 그런 감정들을 받아들인 후 소화하는 어떤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느끼고 소화하고 배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제 방법은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는 거예요. 또 공간을 옮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면 자리에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 얽매이게 되는데 공간을 옮기면 다른 자극도 받고, 다른 공기도 마시면서 다른 '지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어려움이나 우울감을 극복하고 있어요.

5.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신 후 방송인으로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신데요. 새로운 시작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조언해 줄 말이 있다면요?

때때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예 안 듣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항상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 하고 시작하기도 전부터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였지?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하면서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스스로 알아본 것도 많고 생각한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에 대해 만약 어떤 사업가가 돈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제가 시도도 하면 안 된다는 거냐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무시하는 순간들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은 아니

겠지만 반대로 또 항상 신경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선택적으로 타인의 말을 머릿속에서 꺼버릴 줄 알아야 하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소리를 끌 줄 모르면 나한테서 우러나오는 무언가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6.

미래 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미래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바뀐다는 자체는 알고 있어요. 지금과 무조건 다른 형태를 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한 다양하게 저의 미래를 대비하는 게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가 바뀌고 있으므로 그동안 선배나 부모님들이 했던 것처럼 적금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취업하고, 이력을 채운 다음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이런 공식들이 전혀 안 맞는 미래가 될 거예요. 이에 대비해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갖고 가는 거죠. 여러 가지 관심사, 여러 가지 활동, 여러 국적, 여러 가지 방향들을 복수로 갖고 있어야 10년 후, 15년 후에 마실 물이 없는 나라가 생긴다고 해도 그 문

제에 갇히지 않을 수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긴 하지만 이제는 그런 대비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봐요.

7.

어릴 때부터 영특했고, 다방면에 지적 호기심이 많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자리 잡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셨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 하고 싶은 거나 궁금한 것을 해 보면서 그것에 진심이면 언젠가는 '어떤 사람'이 되겠죠. 거꾸로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것에 제 자신을 끼워 맞추기보다 스스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해 보면서 발견해 나간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저의 다른 모습을 발견할 게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로 어떤 규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8.

이미 한국에서 방송인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지요?

저의 영향력이 계속된다면 물론 환경 이야기도 계속하고 싶고 다른 이야기들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요. 스스로 해 보고 싶은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진심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지 않고요. 저도 다양하게 도전해 보면서 제 스스로를 발견해 나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자유를 느끼고 본인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생활하는 저의 모습을 공유해 드리고, 그런 것을 해 보는 데 있어 고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 같이 얘기해 보거나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는



것밖에는 못 해요. 대신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본인만의 길을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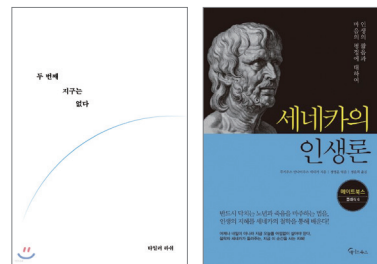
평소 책을 많이 읽으실 것 같습니다.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는 요즘에 전자책을 많이 보고 있어요. 주로 전자책을 사서 보거나 옛날 전자책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만료되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라는 로마 철학자가 쓴 철학서를 영어로 읽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De Brevitate Vitae)>라는 책인데요. 요즘 사람들이 고민하는 인생 문제를 몇천 년 전에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느끼고 고민하는 게 이상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시간 여행을 하면서 그 사람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좀 특이한 책이었는데 아마 요즘 사람들하고 잘 공감돼서 감명 깊게 볼 수 있는 책 중 하나인 것 같아요.

10.

방송, SNS 등 미디어 채널이 많은 요즘, 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책의 용도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요즘 생활 속도가 빨라지고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에 책은 시간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매체가 되었던 거고요. 그러면 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무언가를 터득하거나 배우는 용도죠. 예를 들어 부동산을 이해하고 싶으면 부동산에 대해 굉장



타일러 라쉬가 펴낸 책 <두 번째 지구는 없다>와 그의 추천 도서인 <세네카의 인생론>.

히 알차게 알려주는 실용적인 책을 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시간을 가지고 책을 보고 있을 때 일상에서 어느 정도 도피를 할 수 있으면서도 나중에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전보다 여유를 주거나 감정 상태를 바꿔주는 책들을 사람들이 찾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두 부분으로 책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1.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니었으면 석사 논문을 못 썼어요. 자료가 풍부하고 시설도 좋아서 애용했거든요. 특히 대학원 다닐 때요. 사실 도서관은 뭐랄까, 그냥 잇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주변에 가까이 있으니까 잇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없다면 정말 자료를 찾아야 되는 순간 물에 빠지듯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헤매게 되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시설이 있으니까 든든하게 필요할 때마다 찾아갈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도 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잊어버릴 수 있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2.

12월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느끼는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그동안 제가 하는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연말이 되어가면서 저도 올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덜 역동적인 한 해가 됐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많은 변화와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를 위해 여러분도 천천히 시간을 가지면서 내년을 잘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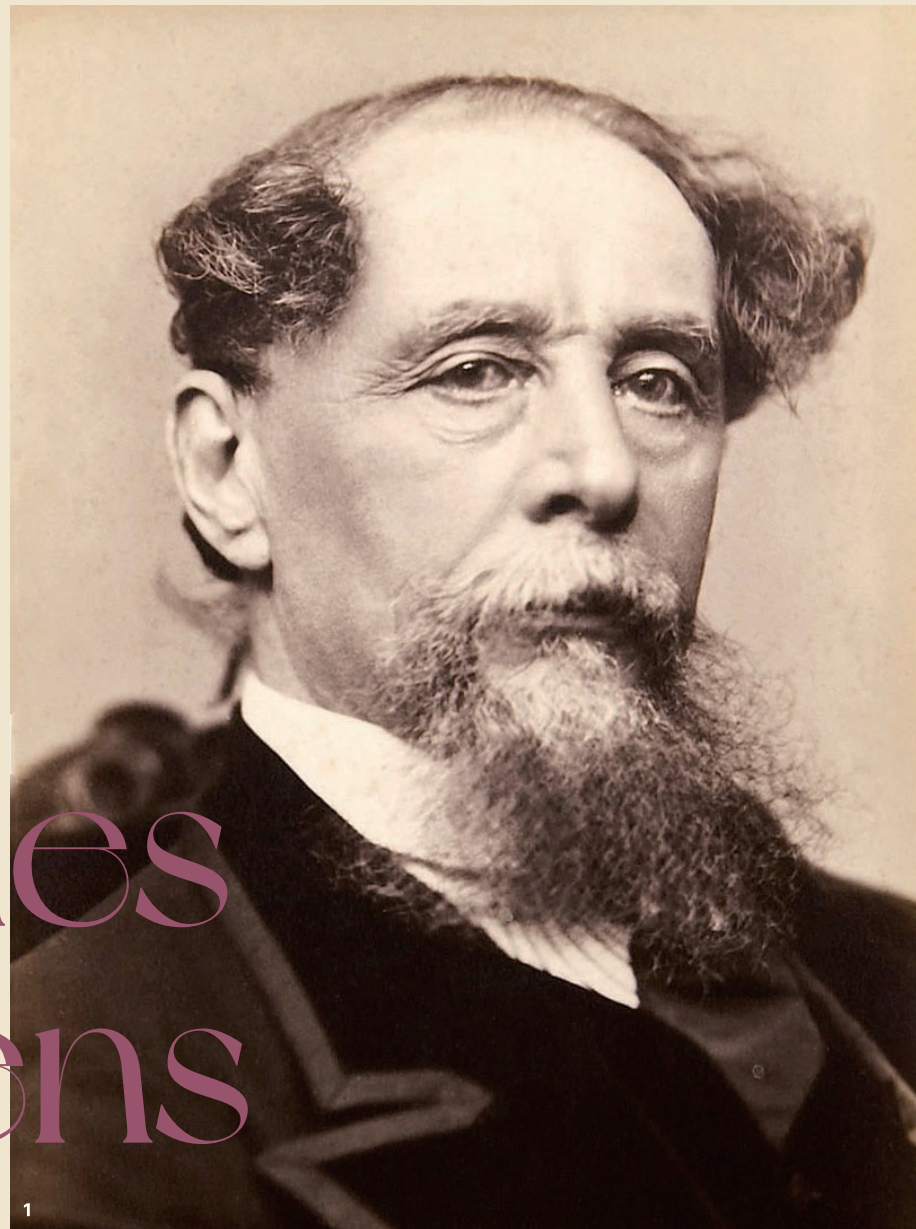
방송인 타일러 라쉬의 인터뷰 영상은 국립중앙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대가 되고 싶었던 가난한 소년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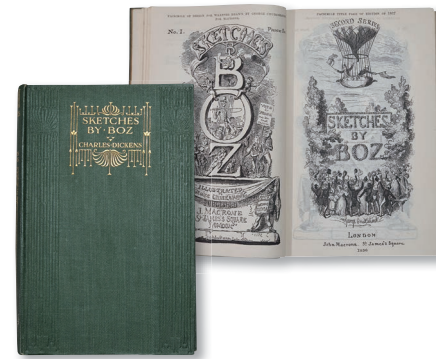
찰스 디킨스(1812~1870)

열두 살짜리 한 소년이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공장에 나와 일하고 있다. 그곳은 좁고 열악한 환경에 어린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곳이 아니었다.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을 얻을 만큼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한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였다. 하지만 그건 귀족이나 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었다. 찬란한 햇빛이 서민들에게까지 비추지는 않았다. 밝은 빛에 가려진 누추한 골목엔 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울 뿐이다. 소년은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한편으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고 싶다는 한 가지 꿈을 잊지 않았다.

글 윤성근 사진 윤성근, 각 출판사, 위키피디아, shutterstock



Charles Dickens



2

1. 영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 찰스 디킨스.
2. 1905년 ‘보즈’라는 가명으로 쓴 연작 소설집 <보즈의 스케치>.
3. 영국 포츠머스에 위치한 찰스 디킨스 생가 박물관.



공장에서 보낸 어려운 시절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의 어린 시절은 그가 쓴 작품과 많이 닮았다. 유명한 <올리버 트위스트(Oliver Twist)>를 기억하는 독자라면 굶주림에 힘겨워하며 학대받는 어린 주인공의 모습을 금방 떠올릴 것이다. 디킨스의 다른 소설에서도 이런 캐릭터는 자주 등장한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시대를 잘 읽는 능력을 타고난 디킨스는 대다수 가난한 서민들의 어려운 일상을 실감나게 기록했다. 또한 그런 삶의 모습은 디킨스 자신이 실제로 겪은 생활이기도 했다.

낙천적이며 공상하기를 즐긴 어린 디킨스는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와 <아라비안나이트(Arabian Nights)>를 자주 읽었고, 현대 광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셉 그리말디(Joseph Grimaldi)의 공연을 특히 좋아했다. 그러나 빛에 허덕이던 아버지가 채무자 교도소에 갇히자 열두 살 나이에 홀로 남아 생계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디킨스는 온종일 구두약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며 극심한 학대와 굶주림을 견뎌야 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교도소에 있던 아버지가 유산을 받게 되어 소년은 4개월여 만에 지옥 같은 공장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하지만 디킨스는 이때의 경험을 작가로 대성공을 거둔 이후로도 줄곧 잊지 않았다. 그의 소설 대부분에 구두닦이 소년이나 구두약에 관한 묘사가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이 4개월여의 경험이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겼는지 알 수 있다.

찰스 디킨스의 가장 큰 재능은 이렇듯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일을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하는 기억력에 있다. 작가가 되기 전 그는 이 재능을 적절히 발휘하여 기자로 일했다. 1년 남짓 법률 사무소에서 일한 것과 비교하자면 기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적성에 맞았다.

청년 디킨스, 배우 오디션에 도전하다

그즈음 디킨스는 연극과 배우의 삶에 관심이 있었다. 법률 사무소 직원과 기자로 일하던 시기에 그는 거의 매일 극장에 가서 연극을 봤고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재미있는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어릴 적부터 배우, 특히 사람들에게 웃음과 연민을 동시에 안겨주는 광대 연기를 좋아했던 디킨스는 스무 살 때 드디어 배우가 되기 위한 오디션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당시 인기 있던 코미디언인 찰스 매슈스(Charles Mathews)의 연기를 흉내 내려고 연습했다. 하지만 지독한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오디션에는 참가할 수 없었다. 만약 그때 디킨스가 오디션에 통과했다면 우리는 지금 소설가 디킨스가 아닌 배우로서의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야말로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 아닐는지.

디킨스는 초기에 ‘보즈’라는 가명을 사용해 기사다운 세밀한 묘사가 돋보이는 연작 소설집 <보즈의 스케치(Sketches by Boz)>를 펴냈다. 런던이라는 대도시에서 겪은 소소한 해프닝을 엮은 이 작품은 반응이 좋았다. 힘을 얻은 디킨스는 본명으로 <올리버 트위

스트>, <오래된 골동품 상점(The Old Curiosity Shop)> 등을 발표하여 연이어 히트시켰다.

비록 직업적인 광대가 되지는 못했지만, 디킨스는 어느 면으로 보면 배우로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디션 사건 이후 디킨스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 거기에 자신만의 배우 기질을 더해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의 서민들은 책을 읽고 싶어도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디킨스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자신이 쓴 소설을 사람들 앞에서 읽어주고 배우처럼 연기도 하는 ‘낭독극’ 공연을 만들어 선보인 것이다.

이 새로운 공연은 영국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디킨스는 미국까지 건너가 순회 낭독 공연을 이어가는 한편, <크리스마스 캐럴(A Christmas Carol)>, <데이비드 코퍼필드(David Copperfield)>, <두 도시 이야기(A Tale of Two Cities)> 등 훌륭한 명작을 창조해 냈다.

모두가 기다리던 산타클로스 같은 작가

독자들은 디킨스의 새로운 책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렸고, 이런 요구를 반영해 소설을 달마다 조금씩 끊어서 출판하는 시도도 이어졌다. 당연히 작가가 독자들이 있는 모든 곳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낭독극을 선보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마을로 소설이 배달되는 날이면 우체부, 혹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나서 작가를 대신해 간소한 낭독회를 열었다. 디킨스의 소설이 도착하는 날이면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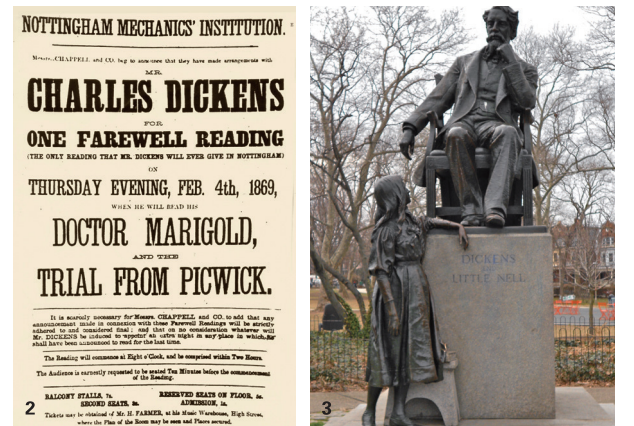
1. 소설 <오래된 골동품 상점>에 영감을 준 런던의 골동품 상점.
2. 1869년 2월, 찰스 디킨스 낭독극 프로모션 포스터.
3.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찰스 디킨스와 소녀 벨의 동상.
4.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찰스 디킨스 묘지.

이 마을 입구까지 몰려나와 기다렸다는 일화는 꽤 유명하다.

디킨스의 많은 작품 중에서도 특히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가 등장하는 <크리스마스 캐럴>은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 독자들이 원하는 것을 언제나 잘 알아차린 찰스 디킨스는 해마다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펴냈다. 1850년부터 집중적으로 선보인 크리스마스 단편들은 1870년, 작가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꾸준히 출판됐다. 빗발치는 낭독극 요청에 디킨스는 쉬는 날 없이 영국 전역을 돌며 독자를 만났고 미국에서도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특히 그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두 번째 미국 낭독극 여행을 떠난 때가 1867년이었는데, 그해 1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무려 일흔여섯 번이나 무대에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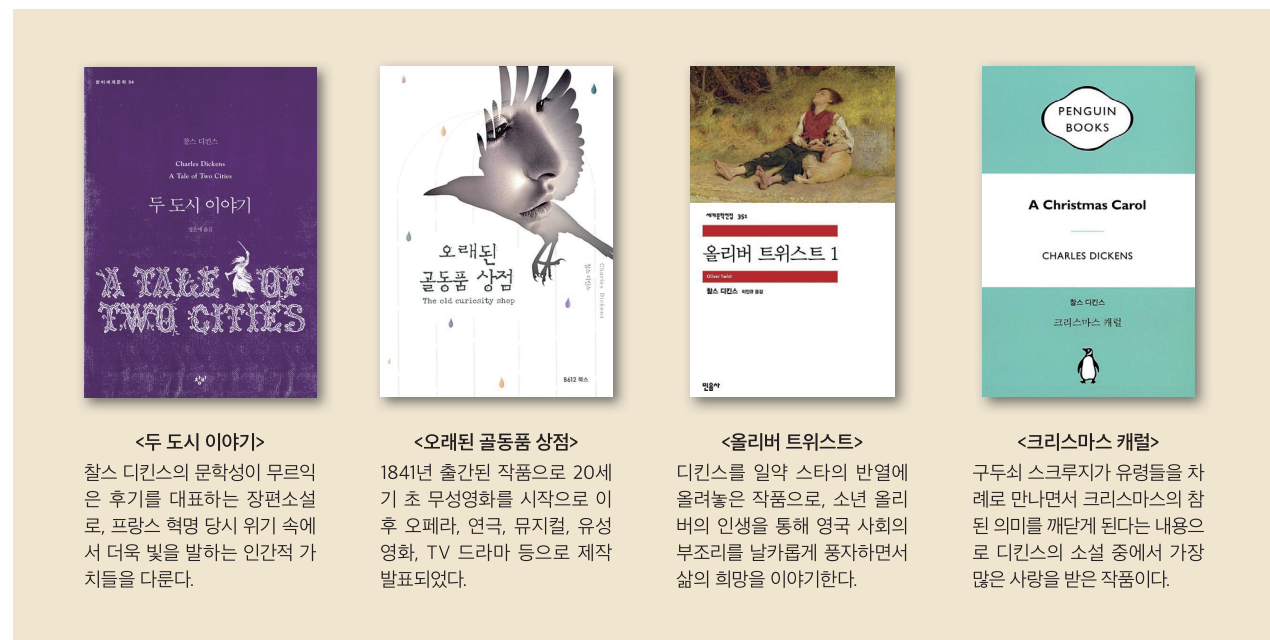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디킨스는 쉬지 않고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방문해 낭독극 행사를 이어갔다. 결국 1869년 4월 18일에 첫 번째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다. 과로가 원인이었다. 상태가 조금 호전되자 디킨스는 다시 낭독극 행사를 열었다. 1870년 봄, 그는 온전치 못한 몸으로 열두 번이나 무대에 올랐고 그해 6월 8일에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그의 나이 쉰여덟 살 때의 일이다.

독자를 직접 만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던 최고의 작가이자 광대는 특히 아이들에게 환영받았다. 가난한 이들에



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의 소설 속 주인공은 언제나 어린아이들이었다. 디킨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좋아했던 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죽은 줄 알고 슬퍼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❶

1 윤성근 | 개인 서점을 운영하며 작가로 활동 중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한책방 기담 수집가>, <작은 책방 꾸리는 법>, <서점의 말들> 등이 있다.





독립서점 산책

공주 독립서점 ‘가가책방’

온기를 품은 무인 서점

글 장성욱 사진 안호성

충남 공주시의 한적한 곳에 자리한 독립서점 ‘가가책방’.
책방 주인 없이 무인으로 24시간 운영되지만 서점은
온기로 가득하다. 처음 마주한 서점이 마치 내 집처럼
아늑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지난 4년간 서점을 방문한 손님들의 온기를 내내
품고 있기 때문이다.

책의 인연으로 서점 창업까지

책을 오랜 시간 좋아하면 인생도 흥미로운 소설처럼 흘러가게 되는 걸까.
서동민 대표가 2019년 6월, 충남 공주시 반죽동에 가가책방을 오픈한
사연은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운명적이다. 서 대표는 서울의 한 스타트
업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북 큐레이션을 하며 업무 외적으로는 북클럽에
참여하는 등 말 그대로 책과 함께한 삶을 살고 있었다. 서 대표의 인생을
바꾼 사건의 발단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초대였다.

“북클럽 멤버 중 한 분께서 공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차리게 되었는데
저를 개업 날에 초대해 주셨어요. 그때가 2018년 7월경이었어요. 그전까
지 공주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는데, 서울과 다른 공주시의 고즈넉
한 분위기에 완전히 반해버렸죠. 그 이후 시간이 날 때마다 공주로 여행
을 오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지금 이렇게 서점을 운영하게 되었네요.”

지인의 초대는 나비효과처럼 서 대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업
무 스트레스로 번아웃 증상까지 생겼던지라 서 대표는 과감히 서울 생활
을 접고 공주로 무작정 이주했다. 서 대표는 때마침 공주시 원도심 일대
에 서점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오래전부터 서점을 차리고 싶다는 로망을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서 대표가 서점 위치를 물색하면서 원하는 조건은 소박했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골목 안쪽에 숨겨진 아담한 건물일
것. 몇 개월간의 노력 끝에 현재 서점 건물을 계약했고, 5평 남짓한 공간
을 손수 꾸미기 시작했다. 오래된 벽지를 뜯어내고 내부를 깨끗하게 청
소한 뒤 의자, 책상, 문짝 등 버려진 가구와 한옥을 짓다 남은 목재들을
공주시 곳곳에서 하나씩 그러모아 서점으로 가져왔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폐자재를 주위 모으니까 동네 어르신들께서는 제
가 목공소를 여는 줄 아셨나 봐요(웃음). 인테리어를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하다 보니 서점 곳곳에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주변에서
수거한 목재들을 조립해 서가를 만들고, 버려진 가구들은 그대로 재활용
했더니 인테리어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았어요.”

서 대표는 손수 쌓아 만든 서점을 2019년 6월 9일에 오픈했다. 지인으로
부터 공주에 초대받은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가가책방(家加冊房)
이라는 이름은 서가 모양이 한글 ‘가’를 닮았다는 점과 ‘한 집 한 집마
다’라는 뜻의 가가호호(家加戶戶)에서 힌트를 얻었다. 어느 지역이든 흔



1. 정감 있는 소품이 인상적인 가가책방 외관 모습.
2. 가가책방 서동민 대표.
3. 사랑방처럼 포근한 가가책방 내부 모습.
4. 공주 예술가들이 만든 굿즈를 판매하는 가가상점의 모습.
5. 서점 입구에 비치된 '가가책방 무인운영 이용가이드'.
6. 손님들이 직접 붙여두고 간 엽서들.



히 존재하는 서점이면서 공주에서만 볼 수 있는 서점인 가가책방은 그렇게 공주시의 대표 독립서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코로나19 시대의 무인 서점 전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가가책방은 눈에 띄는 간판 대신 무릎까지 오는 작은 입간판을 단 채 묵묵히 손님을 기다린다. 낡은 새시 문과 속이 흰히 보이는 투명한 유리, '가가책방'이라 적어 놓은 버려진 밥상과 길고양이 밥그릇, 정감 있는 소품들을 구경하다가 문을 열고 서점으로 들어서면 나만의 아지트에 들어선 듯 마음이 차분해진다.

서점 내부는 서 대표가 폐자재로 직접 만든 서가가 사면을 둘러싸고 있어 포근함이 느껴진다. 서점은 협소하지만 손님들이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중앙의 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소파처럼 편한 자세로 책을 볼 수 있는 좌석을 비롯해 책상과 의자가 곳곳에 마련돼 있다. 가가책방 북 큐레이션의 특징은 새 책이 10~20종 정도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서가 대부분을 서 대표가 소장했던 책들로 채웠는데 고전문학, 인문학, 역사서가 대부분이다. 서가에 있는 책은 입장과 동시에 몇 시간이라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손님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장용 책도 판매하지만 서 대표는 굳이 권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서점을 처음 열었을 때는 책을 아예 판매하지 않았고, 손님들이 마치 사랑방에 온 것처럼 책을 읽고 갈 수 있도록 안내했어요. 책을 판매하지도 권하지도 않는 게 이상했는지 손님들께서 책을 판매하라고 되레 저에게 권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새 책도 입고하고 소장용 책도 판매하지만, 굳이 사라고 추천하지는 않아요. 저는 손님들이 이 공간에서 책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다가 가

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가가책방이 아지트 같은 아늑한 느낌을 주는 건 손님들이 서점 곳곳에 붙여둔 엽서도 한몫한다. 서점 이벤트 때 만든 엽서와 서 대표가 드로잉한 연습장을 한쪽 벽면에 붙여둔 것을 보고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엽서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서점 전체가 엽서로 도배된 것이다. 엽서가 점점 늘어나자 서 대표는 손님들을 위해 메모지와 필기도구를 테이블 위에 준비해 뒀다. 지금은 엽서가 서점 방명록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손님들이 가가책방을 즐기는 하나의 놀이문화로 안착했다.

가가책방은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지만 처음부터 무인 서점 형태는 아니었다. 원래는 서 대표가 서점을 지키면서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공주 지역을 소개하는 등 책방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창업 1년 만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좁은 공간에서 손님을 맞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결국 서 대표는 서점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 서점을 찾았다가 헛걸음하는 손님도 점점 많아졌다. “한 번은 서울에서 한 손님이 가가책방을 보러 여행을 온다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당시 제가 다른 지역에 있던 상황이라 그분에게 서점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편하게 쉬고 가시되 뒷정리만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손님께서 혼자 하루 종일 서점에 머물렀던 시간이 마음에 드셨는지 장문의 편지를 남기고 가신 거예요. 편지를 읽고 ‘아, 이렇게 운영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가가책방은 개업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무인 서점으로 전환했다. 2020년까지는 무료로 개방했다가 2021년부터는 무인 운영 가이드를 만들며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 서점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입장료 5000원을 서 대표에게 입금하고 자물쇠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입장한 뒤,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다가 불을 끄고 문단

속을 한 뒤 돌아가면 된다.

“코로나19 시대에 무인 운영을 결정하면서 시공간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 2월에 서점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가가상점'을 오픈했어요. 이곳에서는 새 책과 함께 공주 예술가들이 만든 굿즈 등을 판매하고 있어요.”

다시 찾아오고 싶은 서점

책과의 인연으로 서울에서 공주로 이주하면서 서 대표의 인생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차분한 공주라는 도시에 정착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서 대도시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안정감을 얻었다. 코로나19라는 악재도 무인 서점 운영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가가상점까지 영역을 넓혔다. 평소 좋아하던 고전문학 독서 모임 운영뿐 아니라 여행객을 위한 골목 투어 가이드 역할까지 맡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저희 서점의 슬로건이 ‘오랜 새로움’이에요. 버려진 것을 새로 고쳐 쓰고, 오래된 이야기를 새로운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저는 서점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점은 무인으로 운영되지만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엽서

에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 가가책방에 마음을 전하는 것, 저는 이런 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서점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 대표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앞으로의 계획 또한 소박하다. 서점 브랜딩과 운영 방법에 대해 고민하되 지금처럼만 운영하는 것. 가가책방의 매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포근함’일 것이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계절과 상관없이 매년 온기가 남아 있는 서점, 가가책방.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책방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 서 대표의 바람은 이미 이루어졌는지도 모른다. ❸

가가책방



영업시간

24시간 무인 운영(연중무휴)

주소

충남 공주시 당간지주길 10(반죽동)

문의

0507-1486-4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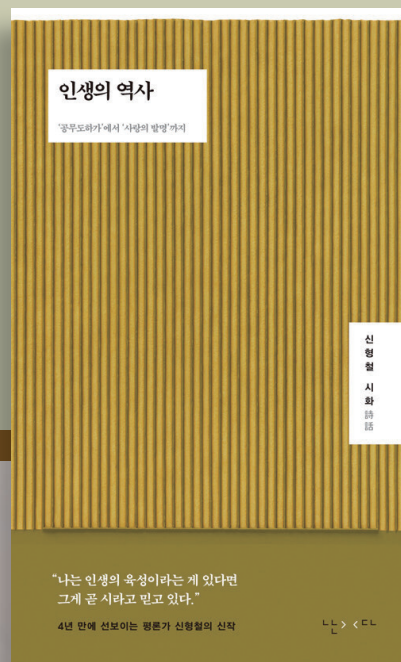
@ www.instagram.com/homowanders



신형철 <인생의 역사> 시화로 걸어 올린 인생의 순간들

글 남궁인 사진 출판사, shutterstock

작가들이 존경하는 문학평론가 신형철이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이후 4년 만에 돌아왔다. 신작 <인생의 역사>는 시를 겪고 읽는 일을 감각적인 문장으로 풀어낸 시화(詩話)라는 형식을 띤다. 그가 인생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 시를 가져온 이유는 다음 문장에서 유추할 수 있다. “나는 인생의 육성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곧 시라고 믿고 있다.”



시를 사랑했었던 시간

한때 시가 영혼을 구원한다고 믿었다. 시야말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카타르시스를 안기는 우월한 문학의 외피라고 생각했다. 막 스무 살을 넘겼고 장래 희망이 시인이라고 답할 때였다. 외출할 때마다 시집과 함께였고 몇 줄의 시구를 생각하다가 울먹였다. 마음속에는 러시아 작가 이사크 바벨이 <기 드 모파상>에서 썼던 구절을 품고 다녔다. “그 어떤 쇠조각도 올바른 자리에 찍힌 마침표처럼 강력하게 우리의 가슴을 찌를 수는 없다.” 그 강력한 마침표는 단언컨대 시의 것이었다. 어설픈 젊음이었다. 하지만 분명 시는 젊음의 소유였다. 내가 사랑하는 시인들은 젊음을 통과하며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시를 써냈다. 그걸 바라본 나도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분투했지만 그야말로 희망에 불과했다. 내겐 강력한 마

침표는커녕 유약한 첫 문장을 쓰는 능력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옛날에 끄적였던 시는 한때의 자아를 표현하려는 분투나 좌절, 그들을 사랑했었다는 존재 증명으로만 남게 되었다. 당시 많은 시인의 시를 읽었다. 비평이라는 장르를 접한 것도 그때였다. 나는 거대한 감정을 주는 시를 사랑했지만, 내게는 이 감정이 정확히 무엇이고 얼마나 이 감정을 사랑하는지 표현할 언어가 없었다. 대신 누군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시를 통렬히 사랑해주기를 바랐다. 그 종착지가 비평이었다. 그곳에는 내가 바랐던 상찬과 치열한 해석, 행간의 절묘함이 있었다. 내게는 없었던 언어의 세계가 무엇보다 달콤했다. 그때 막 지면에 등장한 문학평론가 신형철을 접했다. ‘정확’하게 ‘사랑’하려는 ‘실험’의 언어와 조우한 순간이었다.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자 작가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제법 안온한 날들>,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공저) 등이 있다.

신형철이라는 원체험

그러다 결국 시가 아닌 산문을 쓰면서 일간지에 칼럼 연재를 시작했다. 그나마 읽을 만한 칼럼을 쓰기 위해 아침마다 세상에 발표되는 글을 찾아 읽었다. 대부분의 글은 평이하거나 새롭지 않았고 몇 편만 이 가치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극소수는 내가 쓰는 칼럼과 같은 지면에 인쇄된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이 글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므로 내 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보였다. 그중에는 모두가 사랑하는 글쓰기의 전범, 신형철이 있었다.

그는 문학에서 한 번은 마주해야만 하는 평론가이자 작가다. 근작 <인생의 역사>는 시에 대한 책이지만 평론은 아니다. 그는 비평이 아닌 이야기의 형식으로 직접 시화(詩話)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젊은 시절 사람들 보라고 처음 어딘가에 연재한 글도 시화를 흥내 낸 것이므로, 이 책은 자신의 글쓰기의 원형이라고 밝힌다. 눈이 어두운 나는 비평과 구분하기 어렵지만 독자에게 훨씬 더 편안하게 다가간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인생의 역사> 몇 페이지를 들추곤 불현듯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시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다만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다.

시가 좀처럼 소비되지 않는 세상이지만 신형철의 글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시화의 출발점인 시에 대한 관심을 넉넉히 뛰어넘을 만큼. 직접 읽어보면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나처럼 무감각한 사람은 시를 언뜻 읽고 맥락을 이해하느라 고개를 가우뚱할 때가 많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역사’를 대표하기 위해 선별한 명시를 제시한 뒤 다양한 담론을 바탕으로 본질적으로 시가 작성된 경위와 시선을 보여준다. 그 과정이 명료하고 극도로 지적이라 차라리 감동적이다. 말미에서 그는 감정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절묘한 문단으로 글을 마무리 짓는데, 독자는 시와 해석을 교차하다가 결국 새로운 지평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시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신형철이라는 원체험이다.

詩話

“나는 인생의 육성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곧 시라고 믿고 있다.

”



“

내가 조금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시를 읽는 일에는 이론의 넓이보다 경험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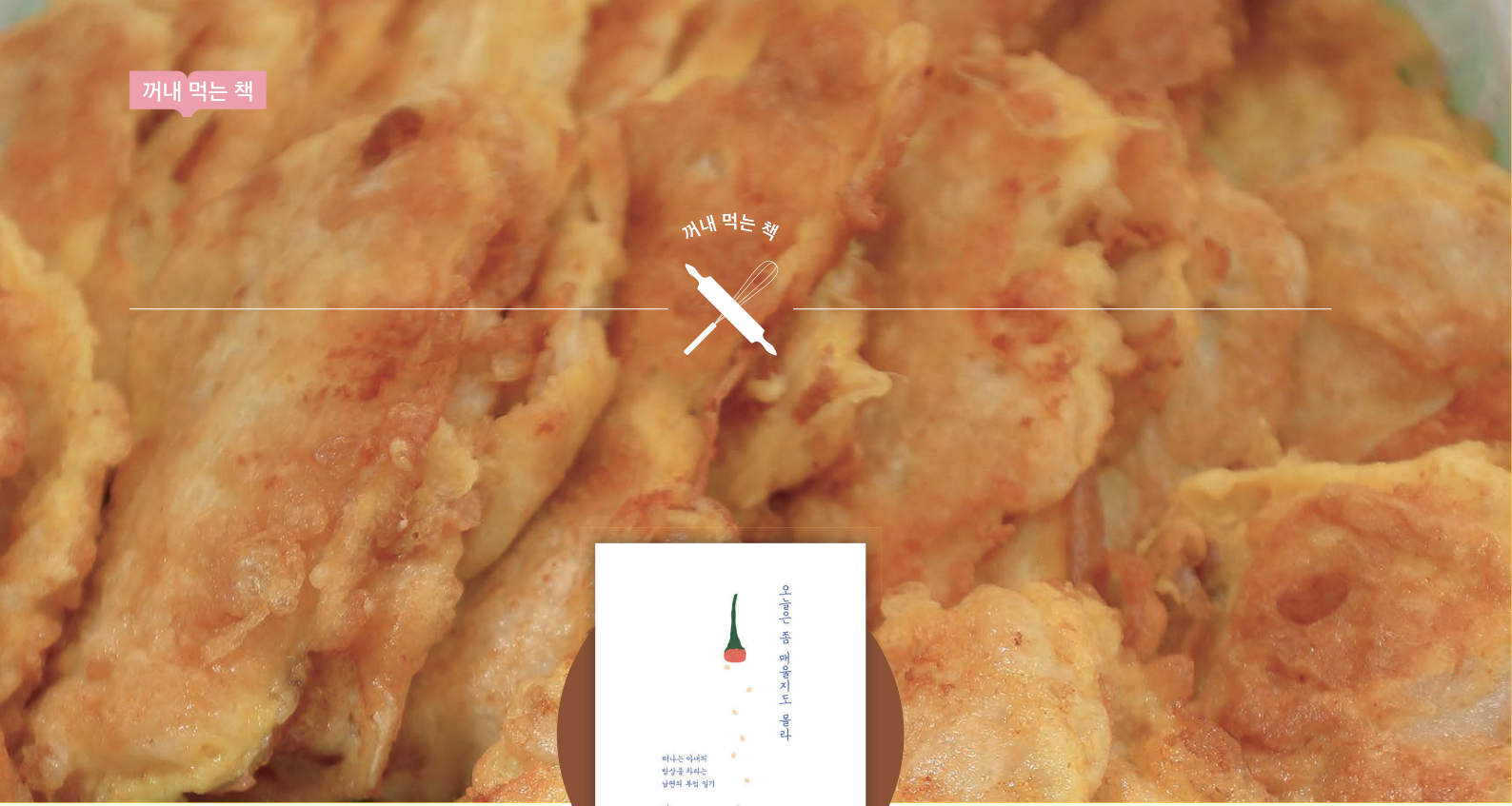
”

시로 바라본 인생의 역사

그의 작문 원칙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전작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에서 본인 글쓰기의 단계별 준칙을 정리해 이번 책에 다시 인용한다. “첫째, 가치 있는 인식을 생산할 것. 좋은 글이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취향이나 입장이 아니라 인식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확한 문장을 찾을 것. 뜻한 바를 백 퍼센트 담아낼 수 있는 문장이 써질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학적으로 배치할 것. 모든 문장이 제자리에 놓이도록 만들어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 대목을 읽고 어쭈장게 놀랐다. 자신이 써놓은 글을 오랫동안 노려본 사람이라면 비슷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글쓰기의 세계에서 이 준칙을 위해 투쟁하다가 근본적으로 패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글쓰기를 넘어 모든 예술에 적용되는 이 간결한 준칙이야말로 그의 글쓰기의 원형 같다. 또한 그는 누구보다 이 준칙에 가까운 글을 쓰는 작가로 보인다. 그의 다른 매력은 인간에 대한 애정과 불의에 맞서는 분노다. 원고를 연재하던 2016년 당시의 정치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하는 글을 그는 일부러 수정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실상 글에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자는 목소리 자체가 정치적이다.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은 이렇게 썼다. “내가

맥없는 책들을 쓰고, 현란한 구절이나 의미 없는 문장이나 장식적인 형용사나 허튼소리에 현혹되었을 때는 어김없이 ‘정치적’ 목적이 결여되어 있던 때였다.” 이 문장을 반영하듯 신형철은 정치적 사건에서 얻은 단상을 뺏아가며 분명히 선을 긋고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그래서 모두가 비통에 잠긴 2022년 말, 그가 인용하는 일본 영화감독 기타노 다케시의 말이 가슴에 꽃히는지도 모른다. “5천 명이 죽었다는 것을 ‘5천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한데 묶어 말하는 것은 모독이다.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5천 건 일어났다’가 맞다.” 그렇게 모두가 깊이 공감하거나 슬픔에 잠기게 하는 힘이 그의 글에는 있다.

그는 책머리에 “내가 조금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시를 읽는 일에는 이론의 넓이보다 경험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라고 썼다. 이어지는 프롤로그는 세뇌에 가까운 사랑을 강요하던 독일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와 그의 연인 루트 베를라우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그의 서술로 사랑이란 때때로 일방적이거나 이기적일 수 있음에 고개를 끄덕인다. 불현듯 그는 독자를 자신의 ‘경험의 깊이’로 넘겨 버린다. 그는 9개월 된 아들을 눈앞에 두고 사랑의 일방적 속성을 다시 깨달았음을 고백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가 필요하다.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나는 죽지 않을게. 죽어도 죽지 않을게.” 독자들을 얼어붙게 하는 대목이자, 앞으로의 글이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이 풀어놓는 죽음의 문학사로 독해되는 순간이다. 몇 번의 울먹이는 순간을 만나자 나는 끝까지 읽지도 않은 이 책을 한 권 더 주문했다.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기 위해서. 그를 ‘정확하게 사랑’한다 표현하고, ‘사랑하는 감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❶



환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 동태전

글 장성욱

에세이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강창래 지음, 문학동네

병석에 있는 아내가 부엌일이 서툰 남편에게 요리를 부탁한다. 할 줄 아는 요리라고는 라면이 전부였던 남편은 아픈 아내를 위해 요리를 해 보지만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엔 이르다. 아내는 남편이 정성스레 만든 건강식 외엔 어떤 음식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생 글을 써온 남편은 이 순간을 스냅사진처럼 평생 간직하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메모에 가까웠던 레시피는 어느새 한 편의 글이 되었고, 글들이 모여 책이 되었다. 인문학자 강창래가 아픈 아내의 밥상을 차리면서 기록한 일기를 모은 에세이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는 이렇게 탄생했다.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이 기름기 뺀 식사를 오래 하다 보면, 굴 한 쪽만 먹어도 먹은 것을 전부 토해 낸다. 동태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지만 신맛이 없어서 환자라도 동태전을 먹고 나면 위장이 깊은 위로라도 받듯이 구토를 하지 않는다. 남편은 통밀가루를 입힌 동태를 달걀 푼 그릇에 넣고 달걀을 잘 입힌 다음,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조심스레 익힌 뒤 노릇노릇하게 익은 동태전을 예쁜 접시에 담는다. 아마인과 강황가루를 올려 지은 밥과 함께 내놓으면 아픈 아내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한 끼가 완성된다.

저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란 “먹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영양이 좋은 밥’”이라고 말한다. 이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아내를 안타깝게 여기며 요리하던 남편의 슬픈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일 것이다. 주변을 정리하던 아내는 남편에게 말한다. “내가 없어도 밥은 제대로 해 먹겠다 싶어서 마음은 편해.” 아내는 세상을 떠나 더 이상 곁에 없지만, 남편은 아내의 밥상을 차리며 터득한 방식으로 음식에 사랑을 듬뿍 담아 이제는 자신과 아들의 밥상을 차린다. ❸

recipe

노릇노릇 레시피

동태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윤기가 찰찰 흐르는 갓 구운 동태전!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한겨울 몸살감기 예방에 효과가 좋아요!

재료

❶ 동태포 2팩(500g)

❷ 달걀 4개

❸ 부침가루

❹ 쪽파

❺ 소금

❻ 후추

❼ 식용유

❶ 냉동된 동태포를 1시간 정도 해동한 뒤 키친타월로 물기를 뺀다.

❷ 후추와 소금을 동태포에 살짝 뿌려 밀간을 잠시 해 둔다.

❸ 달걀 4개를 풀어 저어주고, 쪽파를 잘라서 달걀물에 넣는다.

❹ 잘 저어준 달걀물 옆에 부침가루를 꺼내어 준비한다.

❺ 동태포에 부침가루를 앞뒤로 묻힌 다음 달걀물을 입힌다.

❻ 식용유를 두른 프라이팬에 달걀물 입힌 동태포를 넣는다.

❼ 동태포를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 그릇에 옮겨 담으면 동태전 완성!

Good! 동태전을 찢어 먹을 양념간장을 준비하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다와다 요코
<눈 속의 에튀드>

새하얀 눈송이가 들려주는 비련의 이야기



독일 베를린 동물원의 유명한 아기곰 ‘크누트’의 이야기는 작가 다와다 요코로 하여금 영원한 얼음과 눈의 나라를 갈망하는 곰에 대한 소설을 쓰게 했다. 일본에서 태어난 다와다 요코는 독일로 건너가 일본어와 독일어로 글을 쓴다. 2011년 일본어로 발표된 <눈의 연습생>은 2014년 <눈 속의 에튀드>란 제목으로 독일에서 발표됐다. 이름 없는 할머니와 엄마 토스카, 그리고 손자 크누트 3대에 관한 이 이야기는 소련과 동독에서 캐나다와 서독으로 이주한 이민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눈처럼 새하얀 북극곰이 주인공이다.

글 조혜림 사진 출판사, 위키피디아, shutterstock



<눈 속의 에튀드>, 다와다 요코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화자의 설정과 인간과 대화를 나누는 동물들의 이야기는 요즘 유행하는 멀티버스 속 캐릭터처럼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든다. 하지만 유빙처럼 출렁이는 독일 사회의 변화 속에서 할머니와 엄마, 손자로 이어지는 피의 기록은 아름다운 비련의 이야기로 독자를 눈처럼 녹여낸다. 어느덧 나는 두 가지 언어로 세상을 유랑하듯 쓰인 책에 감화되고 낭만주의 소설의 문학적 허용에 설득된다. 다큐멘터리가 아닌 허구의 꿈속에서 송출되는 북극곰 크누트의 이야기는 동물원과 서커스에 이용된 모든 동물들의 삶을 위한 위로와 헌정이다.

차가움을 그리워한 북극곰

“산보를 가는 도중에 나는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풍경을 발견했다. 그것은 어떤 포스터에 감혀 있었다. 바깥벽에는 다른 포스터가 있었다. 나는 내가 영화관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입구로 가서 영화표를 샀는데 처음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익숙한 것인 양 행동했다. 그 캐나다 영화는 나에게 북극에서의 삶을 보여주었다. 눈토끼, 은여우, 하얀 육식동물, 회색고래, 바다사자, 해달, 범고래 그리고 북극곰. 그곳에서의 삶은 나에게는 잘 상상이 되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게 내 조상들의 일상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 소설 <눈 속의 에튀드> 중에서

북극곰이 주인공인 이 이야기는 우화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간의 유희를 위해 소모된 동물들과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의 기쁨과 슬픔을 다룬다. 소련의 서커스단에서 태

어난 할머니 곰 ‘나’는 청중들의 관심을 끄는 데 익숙하다. 그녀의 통통하고 부드러운 몸은 북극권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상들이 물려준 고급스러운 하얀 털로 덮여 있다. 나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고 혹은 서커스 무대 위에 있었다. 조련사 이반에 의해 사육되던 나는 무리한 연습 속에 무릎이 망가져 곡예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커스단에서 쇠약해진 동물은 총에 맞아 죽지만 나는 운 좋게 행정 직원으로 전직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글을 쓰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비정상 상태가 되고 자서전을 쓰기 시작한다. 자서전을 쓰는 것은 마치 자신의 동굴 안에서 유년 시절을 놓고 몰래 키워내는 것과 같았다. 자서전 속에서 나는 딸 토스카를 낳고, 그 딸은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자마자 만져주지 않을 수 없는 손자 ‘크누트’를 낳는다. 동물이 쓰는 자서전, 그리고 후세들이 살아갈 미래를 담은 글은 딸에게도 이야기를 쓰게 하고, 손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만든다.

토스카는 사회주의 국가 동독에서 조련사 바바라와 ‘죽음의 키스’라는 환상적인 공연을 반복하며 유명해진다. 하지만 1999년 서커스 연합이 해체된 후 해고당한 바바라는 병이 나고, 토스카는 베를린 동물원으로 팔리게 된다. 그녀는 아들 크누트를 낳은 후 인간 친구이자 세상을 떠난 바바라를 위한 전기를 쓴다. 곰의 시선으로 본 서커스단의 삶은 고단하고 강제적인 착취 그 자체이다. 하지만 사방이 가로막힌 감옥 같은 곳에서 피어난 조련사와의 유대, 관객의 환대는 무력하고 무용한 희열을 주기도 한다.



독일 베를린 동물원에 살았던 실제 크누트 모습.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는 최초의 발레 음악이었다.

서커스단과 동물원에서 태어난 그들은 소련과 독일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못한다. 베를린에서 태어나 북극에 가본 적 없는 북극곰 크누트는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 자라지만 늘 추위를 동경한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크누트의 생의 궤적에 춥고 차가운 것은 그림고 애뜻한 것이다. 추위를 향한 원초적인 향수는 차가운 유빙으로 가득 찬 북극을 꿈꾸게 한다. 책을 읽는 내내 작가의 시선뿐만 아니라 동물의 시선과 생각, 느낌을 상상하게 된다. 이 흥미로운 경험은 지배가 아닌 공존의 형태로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야 하며 소통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만든다.

추운 겨울날의 아름다운 춤 '북극곰의 호수'

러시아 작곡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가 남긴 최초의 발레 음악 <백조의 호수>는 중세 독일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첫 등장에 혹평을 받았던 <백조의 호수>는 발레 안무가 더해지고 나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품이 됐다. 프리마 발레리나가 주인공 오데트와 악녀 오딜을 1인 2역으로 소화하며 선과 악을 오가는 청순함

과 고혹미를 뽐내야 하는 이 작품은 발레의 대명사이자 가장 많이 공연되는 작품이며 모든 발레리나의 꿈이기도 하다. 이 소설에서 <백조의 호수>는 <북극곰의 호수>로 소개되며 '나'는 딸 토스카가 <북극곰의 호수>에 출연하여 아름다운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한다. 북극이 아닌 서커스장에서 재롱을 부려야 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사악한 마법에 걸린 것처럼 고통스럽고 부자연스럽다. 사람들의 갈채와 환호 속에 공연하지만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북극곰의 애환은 북극곰의 호수로 비유된다. 언젠가 그들도 마법이 풀리고 차갑고 새하얀 눈 속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바람이 투영된 건 아닐까.

이 책을 읽으며 나는 차이콥스키의 또 다른 발레 음악 <호두까기 인형> 중 '사탕 요정의 춤'이 떠올랐다. 악당 쥐 마왕을 해치우고 왕자로 변신한 호두까기 인형과 클라라 앞에 펼쳐진 황홀한 파티, 그리고 살아난 클라라 인형들의 춤의 향연. 소설 속 북극곰들이 북극으로 돌아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이 진짜 모습을 되찾아 행복한 세상으로 떠나는 이 곡을 생각나게 했다. 거대하고 새하얀 몸으로 살금살금 모기를 부리는 북극곰은 눈의 요정 같을 것이다. 또한 아슬아슬한 곡예가 주는 긴장감 역시 이 곡에 잘 담겨 있다.

곰들을 향한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염원하다

헨리 맨시니의 'Dear Heart'

dear heart wish you were here to warm this night
My dear heart, seems like a year since you've been out

of my sight
A single room, a table for one It's a lonesome town all right
But soon I'll kiss you hello at our front door
내 사랑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오늘 밤이 따뜻했을 텐데
내 사랑 당신이 나를 떠난 지 1년이 됐네요.
혼자를 위한 하나의 방, 하나의 테이블, 쓸쓸한 마을이지만 괜찮아요.
곧 나는 우리의 문 앞에서 당신에게 인사하며 키스할 거예요.
- 헨리 맨시니 'Dear heart' 중에서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아름다운 테마곡 'Moon river'를 비롯해 <핑크 팬더>, <톰과 제리>의 OST를 탄생시킨 미국의 전설적인 영화 음악가인 헨리 맨시니. 그가 영화 <디어 하트>를 위해 만든 주제곡 'Dear heart'는 펄펄 내리는 눈송이와 포근한 담요가 있는, 하지만 조금 춥고 쓸쓸한 연말을 떠오르게 한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서커스의 몰락, 동물원의 침몰, 그리고 크누트의 죽음. 크누트는 눈을 감는 순간에도 하늘에서 펄펄 내리는 차가운 눈송이를 떠올린다. 하얀 설원처럼 환상적인 동화 같지만 고드름처럼 날이 선 진실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눈 속의 에튀드>. 이 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자 나는 크누트에게 'Dear heart'란 곡을 들려주고 싶어졌다. 추운 곳을 갈 수 있다면 모든 걸 감내할 자신이 있었지만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한 크누트의 창백한 삶에 얼음 여왕의 차가운 포옹 같은 쓸쓸하고도 아름다운 이 곡을

그의 마지막에 들려보내고 싶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용감한 곡
예를 했던 할머니와 토스카
에게도 아름다운 이 곡을
들려주고 싶다.

동물의 시선과 마음으로

눈을 감고 오르골같이 아름답게
춤추는 북극곰을 상상해 본다. 흠뻑
려지는 눈 속에서 멋진 춤을 연습하는 새하얀 곰. 우리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만 그 마음까지 헤아릴 순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동물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테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100퍼센트 완전한 통역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매일매일이 비슷하게 느껴질 때, 세상의 모습을 다른 형태와 색깔로 느끼고 싶을 때가 있다. 겨울의 계절감이 익숙해질 즈음, 곰의 시선으로, 동물의 마음으로 눈송이 같은 이 책과 겨울을 보낸다면 낯설지만 새로운 시야에 매혹될 것이다. ❷

조혜림 | 음악 콘텐츠 기획자이자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집필한 저서에는 <페이지스 7집 : 다시보기>가 있다.

러시아 작곡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차이콥스키
'Tchaikovsky : Swan Lake, Op.20
- Act I. No.2 Valse' 듣기



차이콥스키
'Tchaikovsky : The Nutcracker, Dance of the Sugar Plum Fairy - Act 2' 듣기



헨리 맨시니
'Dear Heart' 듣기



news

국립중앙도서관

0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08년생 <소년(少年)>을 만나다

10월 28일(금)부터 12월 31일(토)까지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 전시실에서 <근현대잡지 특별전 : 오늘, 당신의 잡지>를 개최한다. 전시 개막 행사는 10월 28일(금)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잡지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사)한국잡지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근대 잡지의 출현부터 현재 우리 일상에 친밀하게 스며들어 있는 현대 잡지까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역사 속에서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사회의 변화에 따라 문화적 가치를 기록하는 매체로서의 잡지를 이해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마련되었다. 전시는 시대순에 따라 총 4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시대별 대표 잡지를 소개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번 전시가 잡지의 재발견 및 건강한 잡지 소비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문의 국제교류홍보팀 02-590-0582



<근현대잡지 특별전 : 오늘, 당신의 잡지>가 진행 중인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 전시실 전경.

1부. 만인의 기록, 잡지의 힘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인 <대조선독립협회회보>를 포함하여 <소년>, <청춘> 등 근대 초기 잡지의 발자취를 소개한다. 특히 <소년>은 근대적인 종합 월간지의 효시로, 한국잡지협회는 <소년>의 창간일(1908년 11월 1일)을 '잡지의 날'로 제정하였다.

2부. 문화를 잇는 활로

지식과 교양에 대한 갈망이 커지던 1920년대 이후의 문화 소통 창구였던 <삼천리>, <문장> 등의 잡지를 전시한다.

3부. 우리 삶의 종합교양

광복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부터 물질적 성장으로 교양에 대한 욕구가 충만했던 1980년대까지의 <샘터>, <뿌리깊은 나무> 등 특색 있는 잡지를 소개한다.

4부. 잡지 큐레이션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잡지의 다양화로 인해 대중이 자신의 취향과 기호에 맞는 잡지를 소비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대표적으로 <우먼센스>, <행복이 가득한 집> 등이 이 시기에 창간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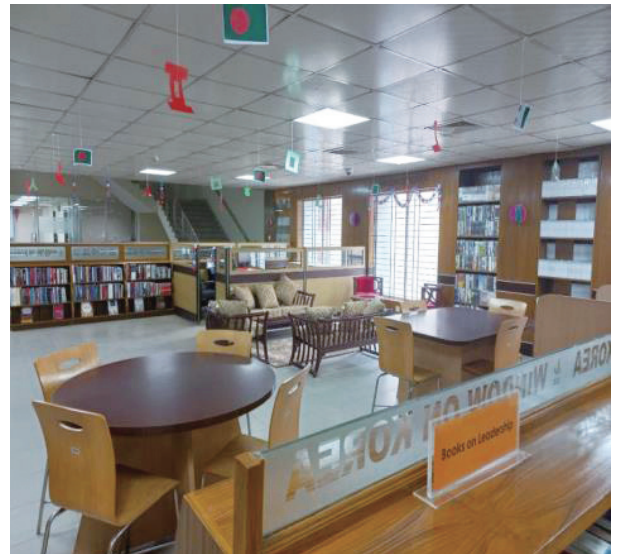
02

국립중앙도서관, 방글라데시에 서남아시아 유일의 '한국자료실' 개실

방글라데시 독립대학교(Independent University, Bangladesh, IUB)에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을 개실했다. 한국자료실은 해외 한국학 연구 지원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이번이 전 세계 32번째 개실이다. 방글라데시 독립대학교에는 70㎡의 면적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한 서가, 책상, PC, 한국어 학습 교재, 한국영화 및 음반 자료 등 3120책(점)이 구비되어 있다. 방글라데시 독립대학교는 2014년 남아시아 대학 중 유일하게 한국영화 및 사회 관련 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곳으로, 이번 한국자료실 신규 설치를 통해 한국학 진흥 및 한국문화 전파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중앙도서관이 2007년부터 전 세계 주요 도서관에 자료실 설치를 지원하고 양질의 한국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한국학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문의 국제교류홍보팀 02-590-6327



방글라데시 독립대학교에 개실한 한국자료실.

03

사서의 역량 강화 지원과 처우 개선이 먼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서직 직무변화 현황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도서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서직 종사자의 역량 강화 지원과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의 요인들이 도서관 기능 확장과 사서의 역할 변화를 촉진하고 있었고, 코로나19 시기 증가한 비대면 서비스는 신기술 도입과 디지털화로 인한 신규 콘텐츠 서비스 증가로 이어져 사서직 종사자들이 상당한 업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른 제언으로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 등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는 도서관의 역할 수행과 도서관 현장의 만성적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사서 인력 충원, ▲사서직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 보장 및 사서 수당 인상 등 현실적인 보상 체계 마련을 통한 처우 개선, ▲도서관 이용자 응대 과정에서 사서직 종사자가 겪게 되는 감정노동 문제를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문의 기획총괄과 02-590-0799

news

국립중앙도서관

04

지난해 발간된 19만여 도서 정보, 한눈에 본다

지난 11월 1일(화) 한 해 우리나라 발간 자료들의 핵심 정보를 수록한 <대한민국 국가서지 2021>이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이번에 발간한 2021년 판은 일반 도서, 공공 간행물, 학위논문, 비도서 등 온오프라인 자료 총 19만 8442건에 대한 핵심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이 연간 출판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유형별, 주요 키워드 등에 대한 시각화 보고서(infographic, 일명 정보그림)도 발행한다. <대한민국 국가서지 2021>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지원서비스 누리집(librarian.nl.go.kr) ▶ 한국서지표준 ▶ 대한민국 국가서지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서명, 저자, 발행 연도, 출판사, 국제표준식별자(ISBN, ISSN 등), 주제어, 자료 유형, 분류기호, 크기와 쪽수, 본문 언어, 이용 대상자 등 자료를 식별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

문의 국가서지과 02-3483-8833



일반 도서가 다른 주제 키워드 분석 결과.

05

한국서지학회와 2022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10월, 한국서지학회와 공동으로 2022년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사, 한국서지학회 회원 및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주제 발표로는 <구운몽> 을사본 판본 연구, '100장본 <술몽쇄언>의 서지적 연구', '정조 친찬 초본 <사부수권>의 편찬 의도에 대한 소고', '우정문고와 아라나미 헤이지로의 장서'가 있었다. 아울러 제8회 월해학술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는데, 국립중앙도서관 김효경 학예사가 월해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문의 고문헌과 02-590-0507



국립중앙도서관

0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전국 소년 보호기관에 책꾸러미 지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서울소년원을 비롯한 전국 11개 소년 보호기관 청소년 1055명에게 도서 3책과 간식으로 구성된 책꾸러미(도서 3165책, 간식 세트 1055개)를 지원한다. 소년 보호기관 책꾸러미 지원은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20년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소년 보호기관 청소년 3431명에게 도서 1만 293책과 간식 세트 1055개를 제공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앞으로도 도서관 이용과 독서 활동에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53



서울소년원에서 책꾸러미를 전달하는 모습.

07

새로운 미래, 도서관이 새 지평을 열다

국립세종도서관은 '제8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11월 10일(목)과 11일(금) 양일간 더케이호텔경기에서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는 협의회의 올해 사업 경과보고와 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올 한 해 정책 정보자원의 공유와 정책 정보 서비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협력 유공자 시상식도 거행됐다. 포상 대상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문화재청 3개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상욱 사서였다. 또한 최신 트렌드 분석과 도서관계 전망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전망 및 도서관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강연과 담론이 이어졌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것으로, 정책 전문 도서관 사서들의 상호 협력과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새 지평을 향한 도서관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문의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 044-900-9062



행사 포스터.

news

국내외 도서관

❶ 성남, '책테마파크도서관' 개관

성남시는 율동공원 내 책테마파크 건물을 공공도서관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지난 11월 3일(목) 개관했다. 기존 책테마파크 건물은 전시 위주의 독서 문화공간이었으나 공공도서관 건물로 전환되면서 그림책 특성화 도서관으로 탈바꿈한 것. 책테마파크도서관의 차별점은 그림책 특성화 도서관이라는 점이다. 7300권의 장서가 있는 열람실을 비롯해 가족실, 독서 동아리실이 새로 들어섰다. 야외에는 그림책 작가 전시 공간과 8개 조형물을 활용한 증강현실(AR) 독서 장려 콘텐츠 체험 시스템이 조성됐다. 이밖에 증강현실 속 동화책 등장인물들과 함께하는 미니 게임, 도서관 대출 기록에 따라 나만의 물고기를 키우는 디지털 아쿠아리움, 스마트 추천 도서 시스템을 운영한다. 책테마파크도서관 이용 시간은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이다.

❷ 구미 금리단길, 스토리 있는 북 카페 거리 조성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은 구미시 도서관 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11월 2일(수) 금오산 인근 각산마을 카페 8개소에서 책 읽는 금리단길 테마 북 카페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책 읽는 금리단길은 지역 카페에 테마별 도서와 북 큐레이션을 지원해 금리단길 주변 환경을 단순히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책을 통해 문화가 있는 명소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추진했다. 구미도서관은 금리단길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목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카페 인테리어 소품, 도서 전시 서가, 북 카페 인증 현판도 제작했다. 북 카페는 1호점 '마음' 북 카페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비치했고, 최근 오픈한 8호점 '동화' 카페는 도서관 메이커스 페이스에서 3D프린터로 출력한 동화 속 캐릭터를 전시하여 고객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도서관



❶ 책테마파크도서관 입구.



❸ 인공지능(AI) 방역로봇. (출처 : 경상북도청)

❸ 경북도서관, 인공지능 방역로봇과 스마트 사물인터넷 에어샤워기 도입

경북도서관은 최근 유행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방역 강화 조치와 강화된 「중대재해 처벌법」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련 중대 시민 재해예방을 위해 올해 제1회 추경에 1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인공지능(AI) 방역로봇과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에어샤워기를 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대면 방역, 실시간 살균 및 공기청정, 실시간 유해성분 측정 등 최신 방역 기술과 AI 로봇을 결합한 AI 방역로봇을 도서관 본관 1층 로비, 어린이도서관에 1대씩 운영하고 있다. 또 첨단 IoT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실내 공기질 주요 성분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방역 기능 활동을 하는 IoT 에어샤워기도 도서관 본관 1층, 어린이도서관 주 출입문에 1대씩 설치했다. 방역로봇과 에어샤워기는 유해 바이러스 살균과 동시에 공기청정까지 가능해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와 근무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❹ 전주만의 특별한 도서관, 연이어 개관

전주시에 전주의 세 번째 여행자 도서관인 한옥마을도서관과 동문 헌책방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동문 헌책도서관이 연이어 개관했다. 먼저 한옥마을도서관은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한 전통 한옥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도서관으로, 전주역 앞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과 전라감영 인근의 다가여행자도서관에 이은 전주의 세 번째 여행자 도서관이다. 한옥마을도서관은 전통 한옥의 특징인 외적 폐쇄감과 내적 개방감을 활용한 구조로, 마당 조망이 가능한 창가에 좌식 공간을 조성해 서정적인 전통 한옥의 맛을 그대로 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문 거리 내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동문 헌책도서관은 추억과 가치를 지닌 책 보물을 찾는 '발견의 기쁨'을 주제로 시대별 베스트셀러와 과거 금서가 되었던 책들을 큐레이션한 것이 특징이다.

❺ '지역사회를 바꾸는 도서관' 프로젝트, 장애와 접근성 문제를 논의하다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는 비영리 연구기관인 놀로지(Knology)와 협력해 도서관과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문헌과 우수 사례를 모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무료로 제공되는 보고서 <도서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 보고서(Accessibility in Libraries: A Landscape Report)>는 ALA의 오랜 사업인 '지역사회를 바꾸는 도서관(Libraries Transforming Communitie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2022년 3월 ALA는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놓여온 및 소규모 도서관에 70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금이 확정되면, 해당 도서관은 이 기금을 이용하여 대상 집단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설계하거나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❻ 미국 공공도서관협회, 2022~2026 전략 계획 발표

미국 공공도서관협회(Public Library Association, PLA)가 '전략계획 2022~2026(Strategic Plan 2022~2026)'을 PLA 누리집에 공개했다. 회원 설문조사, 회원 및 파트너 인터뷰, PLA 리더십 및 직원 참여로 정보를 얻은 PLA 전략계획은 '평등성, 다양성, 포용성, 사회정의(Equity, Diversity, Inclusion, and Social Justice, EDISJ)'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분야의 영향력 공유를 위한 혁신 및 증폭기로서의 PLA 역할을 확장했다. 팬데믹과 인종 및 사회정의에 대한 국가적 외침,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공공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은 전략계획을 갱신할 때 주요 고려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에는 네 가지 새로운 전략적 목표인 변혁, 전문적 성장, 옹호, 조직 우수성 전반에 걸쳐 평등성, 다양성, 포용 및 사회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국외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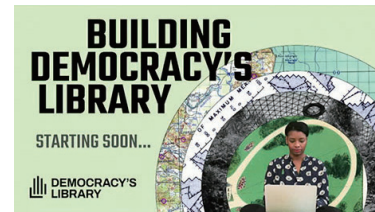
❺ 출처 : ALA



❻ 출처 : PLA



❼ 상하이도서관 동관 (출처 : 상하이도서관)



❸ 출처 : Internet Archive Blogs



국외 도서관 소식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월드라이브러리(librarian.nl.go.kr)에서 확인하세요.

❼ 상하이도서관 동관 공식 개관

상하이도서관 동관(Shanghai Library East)이 문을 열었다. 동관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도서관 건물로서, 면적이 무려 11만 5000㎡에 달한다. 이 도서관은 지혜를 불어넣고, 혁신을 교환하고, 자원을 공유하고, 포용을 증진하는 '지식 교류 공동체'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일반인을 위한 '도서관과 거실 및 작업 스튜디오'와 더불어 도서관 자원과 사회과학 싱크탱크 연구 자원, 그리고 상하이 현지 연구 자원을 통합하는 스마트 하이브리드 도서관을 지향한다. 9월 28일에 공식 개관한 상하이도서관 동관은 22개의 주제 열람실과 1개의 스마트 이노베이션 룸, 그룹 스터디 룸, 평생학습실, 그리고 각 층마다 조용한 독서 공간이 흩어져 있으며, 포용적이고 평등하면서 동시에 정확하고 개인화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❸ 인터넷 아카이브, '민주주의의 도서관' 출범

지난 10월 19일, 미국의 비영리 디지털도서관인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 IA)'의 지지자들이 '민주주의의 도서관(Democracy's Library)'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IA 본사에 모였다.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문서를 수집하여 인터넷에서 제공한다는 계획에 많은 사람들이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왔다. 이날 행사에서 연사들은 그러한 공적 기록물을 보존하고, 중요한 연구 결과의 발견을 쉽게 하며,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 앞으로 민주주의의 도서관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10개년 프로젝트의 목표는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금으로 제작되었으나 찾기 어려운 도서와 지침서, 보고서, 조사 자료, 법률, 학술연구 결과물 등 다량의 정부 발간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미디어창작실

글 이혜민 그림 보리보리쌀

